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윤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슬라브 벅진스키 작품을 응용한
그로테스크 아트메이크업 표현 연구

2016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 · 특수 분장 전공
박 주 혜

지슬라브 벅진스키 작품을 응용한
그로테스크 아트메이크업 표현 연구

문 윤 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 분장 전공
박 주 혜

인 준 서

박주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논문개요

현대 예술과 문화는 점차 창의적인 표현 양상을 추구하며 정형화된 가치관을 탈피한 그로테스크 개념을 예술 양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그로테스크는 기괴스럽고 전위적인 표현 양식으로 상징적인 시대상의 문제를 고발하거나 인간 내면의 충돌과 공상 영역의 범주까지 광범위하게 표현함으로써 현대 사회가 원하는 무한한 극적 표현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로테스크 예술 작가 지슬라브 백진스키의 작품을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특성으로 분류 후 아트 메이크업 작품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작품 제작을 통하여 메이크업의 파격적인 시각예술 디자인 표현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디자인 개발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 방법은 문헌 고찰과 선행 연구 논문 분석을 통하여 그로테스크와 아트 메이크업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백진스키의 작품을 필립 톰슨의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특성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백진스키의 작품 중 총 8점의 작품을 재해석하여 그로테스크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진스키의 삶과 예술관, 작품에 관하여 알아보고 작품을 표현 기법과 특징으로 분류 후 필립 톰슨의 그로테스크 특성(부조화성, 극단과 과장, 웃음과 공포, 비정상성)에 맞는 작품을 선별하여 표로 분류하였다.

둘째, 그로테스크의 이론적 배경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개념을 알아보고 예술 표현 양식으로써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아트 메이크업에 대한 정의와 유형 및 표현 기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넷째, 앞서 표로 분류한 백진스키의 작품 중 8점을 응용하여 아트 메이크업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I ‘시련’은 부조화성에 해당되며 삶의 끝이 없는 시련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회의 모순을 표현하였다.

작품 II ‘환상적 도피’는 부조화성에 해당되며 각박한 삶의 도피처가 되어버린 인간의 환상을 표현하였다.

작품 III ‘삶과 죽음’은 극단과 과장에 해당되며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세계를 형상화하였다.

작품 IV ‘고독’은 극단과 과장에 해당되며 따돌림이라는 현대 사회의 문제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을 표현하였다.

작품 V ‘무채색 웃음’은 웃음과 공포에 해당되며 타인의 시선에 휘둘러 자아를 버린 채 인형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비판하는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VI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웃음과 공포에 해당되며 현대 사회의 감정적 노동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의 현실을 표현하였다.

작품 VII ‘탐욕의 괴물’은 비정상성에 해당되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사는 물질 만능주의의 괴물이 되어버린 현대 사회를 표현하였다.

작품 VIII ‘청춘의 소멸’은 비정상성에 해당되며 청춘이라는 빛나던 순간이 세월이라는 풍파로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백진스키의 작품에 모티브를 얻어 그로테스크 아트 메이크업으로 재해석하였으며, 어도비 포토샵을 통한 사진 합성과 그래픽 기법을 활용하여 최종 아트 작품을 완성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2. 연구 방법과 내용	3
II. 이론적 배경	4
1. 지슬라브 벅진스키 (Zdzislaw Besinski)	4
2. 그로테스크 (Grotesque)	20
3. 아트 메이크업 (Art make-up)	42
III. 작품 제작	48
1. 제작 의도 및 방법	48
2. 작품 제작	50
IV. 결론	90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표 목 차

<표 1> 1~8번 방 작품	18
<표 2> 9~16번 방 작품	19
<표 3> 그로테스크 특성 분류	41
<표 4> 백진스키의 그로테스크 작품 분류 및 디자인 계획	49
<표 5> 작품 I - 디자인 드로잉	52
<표 6> 작품 II - 디자인 드로잉	57
<표 7> 작품 III - 디자인 드로잉	62
<표 8> 작품 IV - 디자인 드로잉	67
<표 9> 작품 V - 디자인 드로잉	72
<표 10> 작품 VI - 디자인 드로잉	77
<표 11> 작품 VII - 디자인 드로잉	82
<표 12> 작품 VIII - 디자인 드로잉	87

그림 목 차

<그림 1> 1982 Paintings	11
<그림 2> 1969 Paintings	11
<그림 3> 1973 Drawings Paintings	11
<그림 4> 2003 Paintings	11
<그림 5> 1978 Paintings	12
<그림 6> 1987 Paintings	12
<그림 7> 년도 미상 Paintings	12
<그림 8> 1975 Paintings	12
<그림 9> 가고일	31
<그림 10> 히에로니무스 보슈 「천국과 지옥」	31
<그림 11> 피터 브뤼헬 「죽음의 승리」	31
<그림 12> 프란치스코 고야 「사투르누스」	31
<그림 13> 쿠스타프 클림트 「키스」	32
<그림 14> 에드바르트 뭉크 「절규」	32
<그림 15> 살바도르 달리 「기억의 고집」	32
<그림 16> 르네 마그리트 「 믿을 수 없는 거울」	32
<그림 17> 아트 작품 I 「시련」 메이크업	53
<그림 18> 아트 작품 I 「시련」	54
<그림 19> 아트 작품 II 「환상적 도피」 메이크업	58
<그림 20> 아트 작품 II 「환상적 도피」	59
<그림 21> 아트 작품 III 「삶과 죽음」 메이크업	63
<그림 22> 아트 작품 III 「삶과 죽음」	64
<그림 23> 아트 작품 IV 「고독」 메이크업	68

<그림 24> 아트 작품 IV 「고독」	69
<그림 25> 아트 작품 V 「무채색 웃음」 메이크업	73
<그림 26> 아트 작품 V 「무채색 웃음」	74
<그림 27> 아트 작품 VI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메이크업	78
<그림 28> 아트 작품 VI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79
<그림 29> 아트 작품 VII 「탐욕의 괴물」 메이크업	83
<그림 30> 아트 작품 VII 「탐욕의 괴물」	84
<그림 31> 아트 작품 VIII 「청춘의 소멸」 메이크업	88
<그림 32> 아트 작품 VIII 「청춘의 소멸」	89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메이크업은 장식, 생존을 위한 보호, 신분 표시를 위한 척도이자 종교적 주술의 개념을 넘어 인간의 미적 욕구라는 본능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다. 무대, 영상 산업의 발달로 인해 한정적이던 미적 범위는 점차 다양성을 띄게 되었으며, 현대 사회에서의 메이크업은 미적 기능을 비롯한 예술의 범주와 혼합되며 독창적 모티브를 제시하여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실정이다¹⁾.

그중에서도 현대 아트 메이크업은 실험정신과 창의적 표현이 돋보이는 “미(美)”와 “아트(Art)”가 결합된 조형예술로, 독창적인 예술적 가치를 지니며 작가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다²⁾. 기발한 발상을 새로운 소재와 형태로 형상화하여 표출하는 토탈 예술의 개념에 속하는데 이는 주관적이며 자유로운 방식에 미적 가치를 더하여 무한한 실험정신과 다양성을 일깨워주는 예술성의 표현임을 의미하며³⁾ 특별한 회화 기법을 사용하여 무한한 상상력과 새로운 현실성 등을 인체에 표현하는 방식으로 계획된다.⁴⁾

아트 메이크업의 다양한 시도, 예술적 표현 방식과 더불어 예술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는 그로테스크는 공상적이고 환상적인 괴기성으로 현 시대에 깊게 내려앉은 왜곡된 세대와 인간의 본성을 직설적으로 표출한다. 즉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자극적 요소를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비현실적이지만 현실

1) 노효경 외 2인(2006), "Beauty make up", 서울:훈민사, p.12

2) 신원선, 권태순(2014), "아트 메이크업 발상", 훈민사, p.10

3) 장미숙,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 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3

4) 김영숙(200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에 기반을 둔 표현 양식으로 통용되는 추세이다⁵⁾. 그로테스크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부조화적이며 불일치한 현상으로 표현 되는 양면적 모순 구조의 미적 개념으로서 “추(醜)”를 미적 범주로 수용하는 것에 기여한다⁶⁾. 이 과정 속에 왜곡된 결합과 극단적 과장이 존재하며 웃음과 공포, 혐오와 희극이 동시에 유발된다. 규율과 규칙, 관습과 이치를 넘어 현실에 공존하는 모든 것들의 근본을 전혀 다른 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추상적인 인간의 내면을 표출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따라서 최근 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 그로테스크 요소를 접목시켜 고정관념을 탈피한 독창적 상상력의 패션과 메이크업이 선보여지고 있다. 좌우 대칭 구조를 파괴하거나 불완전하며 실험적인 이질적 요소를 극단적으로 표출함⁷⁾으로써 미의 기준과 메이크업의 표현 방식이 과거의 장식적인 단순 치장의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이에 본 연구자는 특유의 우울하고 기괴한 예술성으로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 준 그로테스크 예술 작가 지슬라브 벡진스키(Zdzislaw Beksinski)의 작품에서 나타난 그로테스크적 특성 및 예술적 의도를 알아보고, 필립 톰슨의 이론적 특성을 결합하여 이를 그로테스크 아트 메이크업 작품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그는 상상력 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고전적 관념을 벗어난 체계를 형성함에 있어 큰 파란을 일으킨 예술 작가이며 현실의 경계를 초월한 작품은 신비한 그로테스크적 요소와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상상력의 해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⁹⁾.

5) 이선화(2011),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조형성”, 한국복식학회지, 61(5), p.35

6) 윤성혜(2007), “그로테스크 표현을 통한 World of Warcraft와 리니지Ⅱ의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7) 최미라(2004),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추(醜)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1

8) 이영희(2007), 전제서, p.2

9) 조성한(1992), “Beksinski의 藝術世界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2

본 연구의 의의는 그로테스크 예술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아트 메이크업과 그로테스크의 개념을 융합시켜 역설적 표현기법을 시도하고 새로운 발상을 창출하는 가능성을 발견함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백진스키의 작품에 모티브를 얻어 예술 표현 양식으로 조명 받고 있는 그로테스크와 아트 메이크업을 접목시킨 작품 제작을 시도함으로써 현 시대의 문제점을 독창적이며 극적인 디자인으로 승화시키고, 예술 전반 및 메이크업 분야에 폭 넓은 독창적 연출 발상과 발전 가능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2. 연구 방법과 내용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단행본, 학술지, 선행논문, 인터넷 자료들 통해 그로테스크와 아트 메이크업, 백진스키에 관한 이론적 개념을 확립하고 그의 작품을 분석하여 필립 톰슨의 그로테스크 특성을 부합시킨 아트 메이크업 작품 8점을 제작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슬라브 백진스키의 생애와 예술관, 작품의 특성을 알아보고 필립 톰슨의 그로테스크 4가지 특성에 따라 작품을 분류한다.

둘째, 그로테스크의 정의와 개념, 시대별 변천에 따른 특성을 알아본다.

셋째, 아트메이크업의 정의와 유형 및 기법의 특성을 알아본다.

넷째, 4가지 특성 (부조화성, 극단과 과장, 웃음과 공포, 비정상성)에 해당되는 8점의 백진스키 작품을 선정하여 그로테스크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고 어도비 포토샵을 활용하여 아트 작품으로 연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슬라브 벅진스키(Zdzislaw Besinski)

1) 지슬라브 벅진스키의 생애

벅진스키는 1929년 2월 29일 폴란드의 샤록에서 출생하였으며 이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혼란스러운 정치적 과도기였다¹⁰⁾. 2차 세계대전이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과 더불어 폴란드 문화는 전쟁 속에서 점차 비천한 것으로 전락되었다. 이와 같은 비극적 성장 배경은 그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작품 활동에서 절망감과 상실감, 위기감과 극적 표현에 극명하게 나타난다¹¹⁾.

산업화 이전의 낙후된 폴란드 사회는 예술가보다 전문 직업이 선호 받는 시기였다. 시대적 흐름에 의해 벅진스키도 측량기사인 아버지의 압력으로 건축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그는 전문 직업을 선호하지 않는 입장이었다¹²⁾. 강압에 의한 건축공부를 시작한 그는 1947년 크라코우(Cracow)대학의 건축학부에 입학하였고, 1951년에 이르러 소피(Sophie Stankiewicz)와 결혼하게 된다. 결혼 후 건축사무소에서 분양 추첨 감독 업무를 맡게 된 그는 건축업이 아닌 예술을 하기 위하여 195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진 작업에 전념하였다¹³⁾. 1958년에 이르러 폴잔(Polzan)에서 첫 번째 작품 전시가 개최 되었고 아들 토마스(Thomas)가 출생하게 되었다¹⁴⁾. 사진을 통한 예술

10) 조성한(1992), 전계서, p.4

11) 진은수(2011), “무의식적 동기에 의한 언캐니 형상의 탐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4

12) 조성한(1992), 전계서, p.8

13) 상계서, p.14

14) Dmochowski(1991), “BEKSINSKI”, API, p.7

활동으로 입지를 굳히기 시작한 그의 작품 활동은 곧 그림으로 이어졌다.

예술적 재능으로 가득찬 백진스키는 전쟁화의 해석을 통해 미술계의 파란을 일으켰다. 1964년 백진스키가 해석한 전쟁화는 예술적 재능으로 가득찬 그를 증명하며, 다른 이들에게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깊은 각인으로 남았다. 그가 깨닫는 실례가 드러나는 예술세계는 대중의 이목을 이끌며, 심오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의 전쟁화는 수많은 비평가 함께 미술계의 충격적인 파란을 일으키게 되었다¹⁵⁾.

1967년 폴란드 수도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펜과 검은색 볼펜으로 그린 작품을 출품하였는데 1950~60년대에 연필로 그려진 반추상적인 그림과는 달리 구조와 내용물이 탄탄하였다. 백진스키는 점차 직관적인 현실을 포착하여 나타냄으로써 비평가와 대중의 눈을 사로잡게 되었고 작품의 유형과 대상으로 놀라움을 선사하였다¹⁶⁾.

1975년 그의 뛰어난 작품성은 예술 평론가들의 화두에 오르며 논쟁을 거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예술 평론가들은 “폴란드 최고의 화가”로 백진스키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후 유명세에 불편함을 겪은 백진스키는 모든 전시회와 수상을 거부하며 바르샤바로 떠난다. 그는 은둔자적 성향으로 대중의 궁금증 속에 자신을 숨기게 되었고 하루 평균 12시간씩 음울한 음악을 들으며 지속적인 작품에 정진하였다. 주로 괴기스럽거나 우울한, 슬픈, 과장되고 힘이 있는 황홀한 음악을 선호하는 반면 유행가나 댄싱, 팝, 웃음의 요소가 담긴 가벼운 음악이나 고상하고 즐거운 음악은 작업에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고 여겼다¹⁷⁾. 음악을 기반으로 드로잉, 페인팅 및 도구를 사용한 그의 작업 기법은 1990년대에 접어들며 새로운 매체를 시도하게 된다. 이는 작업물에 컴퓨터 그래픽을 접목하여 강렬한 긴장감과 극명한 표현력을 끌어

15) 조성한(1992), 전계서, p.34

16) 진은선(1997), “현대사전에 나타난 여성신체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8

17) 조성한(1992), 전계서, p.58

올렸다.

고립된 예술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2005년 2월 22일 타살로 인해 생을 마감한다. 백진스키의 작품들은 전부 제목이 붙여지지 않았으며, 그는 본인의 작품처럼 고립된 예술가였다¹⁸⁾.

2) 백진스키의 예술관

백진스키는 폴란드의 대표적인 예술가로 그의 작품은 현실 세계의 최악과 재난, 금기를 직접적으로 다루며 신비로움과 죽음에 대한 깊은 교감을 표출한다.

그에게 예술이란 자신의 주체에 의해 창조되어야 하는 독창적인 사상에서 비롯되는 것 이었으며 목표나 제작 방법에 대해 생각을 갖지 않은 무의식의 상태야말로 사물을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¹⁹⁾. 이와 같은 사상은 배움을 통한 노하우가 예술 작품 창조에 있어 최선의 효과를 준다는 입장을 믿지 않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방법적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배움을 통한 노하우를 원치 않았으며 타인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의식일 뿐이라는 의심이 가득했다. 이는 전통적인 문화적 의식을 통하거나 타인에 의한 영감으로 예술을 하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은 가치가 없으며 어떠한 중요성도 갖지 못함을 의미 한다²⁰⁾.

그의 작품은 초현실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리얼리즘의 흔적이 강하다. 혼란스러운 시대적 변화와 생활환경의 영향에 크게 노출되어 성장했기 때문에 자유와 자아의 표현을 추구하기보다 인간 사상과 자유에 대한 억압에 익숙했던 것이다. 성장 환경에서 파생된 사고의 시각은 작품세계 형

18) Dmochowski(1991), 전계서, p.8

19) 상계서, p.20

20) 조성한(1992), 전계서, p.70

성에 반영되었고, 모더니즘과 사회주의 작가의 작품 경향과는 달리 표현적 리얼리즘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다²¹⁾. 예술가의 자질을 타고난 백진스키는 숨김없이 자신의 괴로웠던 과거를 예술로 승화시킨다. 이는 자신이 겪은 불우한 시대의 역사를 가식 없이 고스란히 표현하는 것이며 대중은 그의 예술 세계를 통하여, 인간이 비인간화 되어가는 과정을 극명히 느끼고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부여 받는다²²⁾.

그는 작업에 돌입할 때 실제 겪을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을 밀도 있는 요소로 해체하거나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형상의 해체와 비실제적인 요소는 관람자로 하여금 비웃음적인 요소를 자아내게 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악조건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지 되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며 심오하게 다가온다. <그림 1>는 1982년 페인팅 작품으로 해골 형상의 존재가 자신과 동일한 해골을 식사하는 듯 비인간적인 비정상의 특징을 수반한다. 백진스키는 인간의 삶 속에서 늘 존재하는 두려운 현실과 상황에 대한 호기심이 충만했으며, 거미줄이나 뼈처럼 밀도 있는 것을 사용하여 방법적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작품의 신체는 살아있는 인간의 몸의 형태가 아니며 과도하게 변형된 모습으로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멀다²³⁾.

<그림 2>는 1969년에 제작된 페인팅 작품으로 해골의 형상을 한 인물이 극단적이며 기괴한 형상으로 묘사되어있다. 살아있는 생명체인지, 성별의 구분마저 모호한 작품의 인물은 반라의 형상으로 화폭의 중심에 앉아있지만 결코 에로틱한 특징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님이 느껴진다. 이처럼 불규칙한 형상들은 현 세상과 삶에 존재하는 문제 해결을 정확히 명시하는 환상적 표현 수단이며, 고정적인 생각을 벗어나 세상과 예술가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21) 상계서, p.9

22) 상계서, pp.51-52

23) 최승민(2006), “초현실주의적 환상이미지 연구 : 북부 유럽의 대표적 작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0

정치, 문화 구조 등 문제 해결 관점을 정확하게 명시한다. 또한 몽환적이지만 무엇보다 사실적인 관련성을 내포한 순수함의 환상적 표현으로 관람자에게 감명을 부여하며 우리를 새로운 시공간으로 끌어들인다²⁴⁾. <그림 3>은 1973년 도면 페인팅 작품으로 가면을 쓴 나체의 여성과 거울로 추정되는 사물 속 표정이 기묘한 공포감을 수반하며 희극적으로 묘사되었다. 이와 같이 그의 내면세계는 보는 이로 하여금 4차원을 넘나드는 경이로운 세계를 선사하기도 한다.

백진스키의 작품은 인간세계에서 일어나는 살인, 파괴, 심략, 고통 등을 수반한다. 이는 전쟁의 재앙이라는 외적 요소의 절대적 영향으로 자연적인 현상과 현실적인 것을 거부하며 증오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²⁵⁾. 현실이란 생소한 것이며 어떠한 우주, 세계의 광범위한 형상이 그의 내면세계에서는 ‘정신적 상황’으로 인지되었으며, 모든 것을 자연적 시각이 아닌 상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의 작품에서 사물이란 본연의 형태로 존재하는 집합체일 뿐이다²⁶⁾.

그는 때로 현 시대의 지구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삶, 기아, 황무지, 가뭄 등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을 그림으로 대변한다. <그림 4>는 2003년의 단색 구성으로 이루어진 페인팅 작품으로 인간의 얼굴에 과장된 형체를 결합하여 죽음이라는 주제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묘사는 생명의 불씨가 바스라지고 폭풍우가 휘몰아친 듯 죽음이 가득한 고요로 표현되기도 한다. 백진스키는 삶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상황들을 꿈을 통하여 느끼고 제작하며 그에게 있어 꿈은 숨겨진 작품 작업의 중요한 열쇠이다²⁷⁾.

<그림 5>는 1978년에 제작된 페인팅 작품으로 인간으로 보이는 형상과 해양식물의 이질적 결합으로 신비한 부조화성이 두드러지며 <그림 6>은

24) Dmochowski(1991), 전계서, p.9

25) 상계서, p.21

26) 최승민(2006), 전계서, p.32

27) Dmochowski(1991), 전계서, p.16

1987년 페인팅 작품으로 관점과 동작에 관점을 두고 인간과 철물부조의 부조화적인 결합이 눈에 띈다. 작품에 표현되는 이중적 태도는 그의 진실한 정신을 숨김없이 나타내는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서로 상충되는 구조를 혼합함으로써 매력과 불안감의 양면성을 형성시키며 관객이 스스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라는 것이다²⁸⁾. 작품은 단순한 메시지 전달의 목적이 아니며, 대중들로 하여금 그 이상의 잠재력을 유도한다. 즉, 그의 작품에서 누구든 예술적 모토가 되는 동일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백진스키는 직접적인 하나의 감동을 주는 것,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의미란 중요하지 않으며 그의 작품에서 역사적 의미나 상징성을 찾는다면, 공허함만 느끼게 될 것이다²⁹⁾.

<그림 7>은 년도 미상인 페인팅 작품으로 파괴된 형상의 인물들이 신체의 왜곡과 비인간적인 입맞춤을 통하여 생명을 앗아가는 듯한 충격적인 비정상의 묘사를 드러내고 있다. 그의 작품은 내면의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파격적이고 혐오적인 형상을 보이며 점차 대중의 관점을 무의식의 세계로 이끈다. 그는 무의식을 통한 내면의 상상력을 기록하는 그림의 무대 감독이다. 작품은 주로 충격적인 색의 배합과 형태의 병렬로 이어지며 기괴한 분위기로 ‘혐오감’을 조성한다³⁰⁾. <그림 8>은 1975년의 페인팅 작품으로 웅장하며 파격적인 색채감과 표정을 알 수 없는 존재가 혼합을 이루며 웃음과 공포를 동시에 내포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의 근원과 파격적인 주제는 우연이 아니다. 그는 작품을 반복적으로 제작하며 혐오스러운 그림을 대중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의도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중은 기존의 외형을 잊게 되며 관점의 폭을 깊게 구축하여 더욱 새로운 발상과 공상을 시도한다³¹⁾.

28) 조성한(1992), 전게서, p.56

29) 상계서, p.66

30) 최승민(2006), 전게서, p.37

31) 진은수(2011), 전게서, p.17

그의 작업의 최종적 목적은 작품이 황홀한 사진처럼 구현 되는 것이었다. 상상력과 환상적인 사건은 작업의 기원이 된다.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이끌어 내지 못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도약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한한 상상의 세계에 밀접하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³²⁾. 백진스키는 항상 두 가지를 강조하였는데, 첫 번째는 공상이며 두 번째는 시도이다³³⁾. 백진스키는 인간의 고민과 불안, 모순된 공포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자기분위의 독특한 화가였으며,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작업을 통해 인간의 꿈과 환상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의 극적 경지를 펼쳐보였다³⁴⁾.

32) Dmochowski(1991), 전계서, p.16

33) 조성한(1992), 전계서, p.72

34) Dmochowski(1991), 전계서, p.18



<그림 1>

1982 paintings

(출처-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2449)



<그림 2>

1969 Paintings

(출처-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3398)



<그림 3>

1973 Drawings paintings

(출처-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7&picture=2863)



<그림 4>

2003 Paintings

(출처-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13&picture=266)



<그림 5>

1978 Paintings

(출처-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2443)



<그림 6>

1987 Paintings

(출처-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1&picture=2528)



<그림 7>

년도 미상 paintings

(출처-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2515)



<그림 8>

1975 Paintings

(출처-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2454)

3) 백진스키의 그로테스크 작품

피오트르 드모호프스키(Piotr Dmochowski)는 폴란드 출신의 파리의 변호사로 1972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폴란드 화가 백진스키(Beksinski)의 작품을 접하게 된다. 전시회에 전시된 백진스키의 작품과 예술성에 감명을 받은 드모호프스키는 그 시절 무명이었던 그의 작품을 모두 구입하여 소장하게 되었다. 이후 전쟁의 절망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백진스키의 작품의 비범함을 읽은 그는 평생 백진스키와 끈끈한 인연을 맺으며, 1989년 직장을 그만둔 후 똥피두센터 부근에 백진스키의 작품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화랑을 열었다³⁵⁾.

현재 인터넷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는 드모호프스키 미술관은 백진스키의 작품들을 제작에 사용된 다양한 기법과 특성에 맞게 1번부터 16번의 방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미술관 사이트에 보존 되어있는 1~16번 방의 작품들을 재 분류함으로써 백진스키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작품 제작 시 응용할 작품을 선별하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각 방에 분류 되어있는 백진스키 작품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번 방은 1950년대부터 사진 기술에 전념한 작품들로 이루어져있다.

2번 방은 1950년대 말에 이르러 백진스키는 표현의 도구에 전념하기 시작하면서 제작한 작품들이다. 이 시기의 작품 창작에서 백진스키는 추상 조각, 금속 시트, 와이어, 석고 등을 작품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며 사진 작업을 그만두게 된다. 또한 그는 예술작품의 과정을 순수추상 작품들을 통해 창출하기도 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현 시대에 존재하는 편리한 물질과 형태들을 추상적인 물성으로 변형 시키는 것이었다. 그의 예술적 재능은 저부조의 형태를 추상적이고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하기에 기술적으로 수준이

35)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0837&cid=40942&categoryId=34397>

높았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밀도 높은 표현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용도와 밀도가 적정한 플라스틱 물질, 철판과 철사를 산으로 부식시키거나 극단적 밀도를 위해 망치로 두들겼다. 이로써 밀도 높은 재료들은 저부조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효과를 표출하기 수월하였다³⁶⁾.

3번 방은 그가 피카소의 영향을 받으며 연필, 잉크, 볼펜, 색연필을 사용하여 반 추상적인 소묘를 그리기 시작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4번 방은 1960년대부터 백진스키 자신의 Sado-masochist(가학-피학성 변태 성욕자)의 경향을 발견함으로써 이를 표현한 도면들로 구성되어 있다.

백진스키의 드로잉은 과거 반추상의 형태로 도색적인 에로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현대 예술가들은 백진스키의 드로잉의 구조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그의 드로잉은 50~60년대의 반추상 형태로 지금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다. 그 때의 드로잉 작품은 주로 생략 없이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였으며, 주제와 예술성은 보는 이의 관심과 이목을 끌게 되었다. 그가 그린 드로잉은 주저함 없이 매우 생생하고, 생물적인 에로틱의 요소가 짙었고 도색적인 면이 강하게 드러났다³⁷⁾.

5번 방은 1970년대의 도면 시리즈로 이루어졌다.

6번 방은 1980년대 작가 스스로 작품 제작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미숙하게 채워져 있다.

7번 방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수채화가 칠해진 새로운 시리즈에 전념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8번 방은 모노 타입 작품에 전념한 시기의 작품들이다. 백진스키에 의해 첫 추상 도면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작품에 드러나는 사람은 부부뿐이다.

9번 방은 날카로운 도구로 그려진 검은 페인트와 유리 조각으로 이루어졌다. 젤라틴을 판면으로 하는 사진 인쇄법의 작품들로 얼굴의 일그러진 변형

36) 조성한(1992), 진계서, p.30

37) 최승민(2006), 진계서, p.31

으로 기괴스러운 특징이 두드러지며, 조각 감광지를 태양에 노출시켜 작품을 완성하였다.

10번 방은 페인팅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은 감정과 의미와 비전을 상상하고 있으며, 활기찬 동시에 불안하고 불길한 신비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다.

11번 방의 작품들은 풍경, 관점, 동작을 더 경제적으로 그릴 방법을 시도한 것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머문 1984~1989년도를 포함하여 11번 방에 표현되었다.

12번 방은 백진스키의 그림이 부드러운 색상과 단순화된 형태로 큰 변화를 겪게되는 1980년대 후반의 작품들로 제시되어있다.

13번 방의 작품들은 이전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상을 보인다. 작품들은 붓으로 얇은 실처럼 공간을 채우는데, 거미줄로 엉켜버린 얼굴, 건물로 구축된 인물의 일부를 드러낸다. 이러한 작품들은 전부 단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도적으로 정서적 박탈감을 부여하는 죽음을 다룬다.

신체의 분해를 묘사하여 위협감을 조성하며 에로틱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즉 백진스키는 작품에서 신체가 분해되어가는 과정을 생생히 묘사하는데, 이는 뼈와 살이 분리되어 피부가 파괴되는 형상을 그린다. 피부와 정액, 피를 담는 그릇도 동일한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만약 그가 사진촬영을 통해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을 중단하거나 변태적 성향을 보일 뿐 이었다면 작품성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작품에서의 사실적인 부분도 삭제되어 표현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분리된 살가죽은 우리에게 위협감과 혐오감을 조성하지만, 문자나 형태가 주로 인간의 형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자연의 독특한 에로틱함이 드러난다.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이 기묘한 교감은 오직 몇 개만이 인간의 형상을 한 자연적 조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³⁸⁾.

38) 조성한(1992), 전례서, p.37

14번 방의 작품들은 복사기로 작품을 재구축한 것들이다. 그는 팔과 다리, 머리의 배열의 변화를 가하기 위해 작품을 그리고 복사하여 머리카락이나 종이에 다른 것을 그렸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작품은 미세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고 사소한 사본에서는 작품을 구분하기 힘들었다. 이후 백진스키는 작품 변형을 위한 더 좋은 도구를 발견하게 되었고 복사기 기술은 다루지 않게 되었다.

15번 방의 작품들은 컴퓨터 합성 기술로 만들어졌다. 그는 거리에서 다양한 사진을 찍고 스캔하여 수많은 왜곡을 만들었다. 전반적으로 신체의 변형과 왜곡에 중점을 두었으며 화려한 색채와 과감한 기괴성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충격적 잔상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16번 방은 백진스키 인생의 마지막 표현 형태인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었다. 그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복사기를 사용했을 당시처럼 첫 번째 테마를 그려두고 유사한 작품들을 창조했다. 각각의 작업은 50부를 인쇄하고 그 다음 원본을 제거하였다. 하지만 그는 작품을 바로 인쇄하지 않았고 이후 그는 살해되었다. 이로 인해 원본 사본이나 서명이 위조된 도면이 유일하며 원본과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되었다.

백진스키 작품에 드러나는 그로테스크적 요소의 여파는 단절과 고독을 겪는 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며, 동시에 생에 대한 가능성을 부여한다. 즉 결여된 고독 속에서 인간은 비극에 대한 판단의 양의적 모호성을 겪고, 이 과정을 지나 밝은 어둠을 해소하여 갈망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다³⁹⁾.

본 연구자는 사이트 설명문에 기재되어있는 1~16번 방의 설명을 토대로 각 방의 기법들과 제작 특징을 알아보고, 그로테스크의 특징을 현대적으로 정의한 필립 톰슨의 이론에 부합되는 작품을 선별하여 <표 1>, <표 2>로 분류하였다. <표 1>은 1~8번, <표 2>는 9~16번 방의 작품들을 제작 특징

39) 상계서, p.11





























으로 분류 후 톰슨의 4가지 이론 부조화성(이질적인 것들의 혼합과 충돌), 극단과 과장(가치질서를 위배하는 극단적 표현), 비정상성(양면적 감흥을 부여하는 부자연스러움), 웃음과 공포(부정적 의미의 유희성)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작품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았다.

이상 백진스키의 작품들의 특징과 톰슨의 그로테스크 특성에 부합되는 작품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백진스키 미술관 1~8번 방 작품

구분	Room 1	Room 2	Room 3	Room 4	Room 5	Room 6	Room 7	Room 8
작품 분류	Fotografia	Sculptures and relief works	Half-abstract drawings	Sadomasochist drawing	Drawings paintings	Sketches	Drawings	Monotypes
작품 특성	사진 기술 응용 제작	도구를 사용하여 추상형태로 표현	반추상적 소묘 제작	가학적 변태 성욕을 표현한 도면 제작	1970년대 도면 제작	1980년대 미숙한 도면제작	1990년대 중반 수채화	추상도면 함께 사용
부조화성 (이질적 결합)								
제작 년도	1950-60	1959	1965	1965	1972	1988	1996	1961
극단과 과장 (정상 범주를 벗어난 형태)								
제작 년도	1950-60	1960	1956	1966	1973	1988	1996	1961
웃음과 공포 (신랄한 웃음이 담긴)								
제작 년도	1950-60	1961	1962	1967	1973	1990	1997	1961
비정상성 (신체 왜곡, 절단, 변형)								
제작년도	1950-60	년도 미상	1963	1968	1973	1990	2000	1961

<표 2> 백진스키 미술관 9~16번 방 작품

구분	Room 9	Room 10	Room 11	Room 12	Room 13	Room 14	Room 15	Room 16
작품 분류	Heliotypes	Paintings 1968-1983	Paintings 1984-1989	Paintings 1990-1994	Paintings 1995-2005	Works created by means of a photocopier	Computer photomontage works	Computer graphics The 2000s
작품 특성	감광지를 사용한 작품	신비로운 분위기의페인팅	풍경, 관점, 동작에 중점	색상과 형태의 변화를 겪음	단색 구성 죽음에 관한	도면을 복사하여 신체 배열 재구축	기괴한 사진, 컴퓨터 합성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한 작품
부조화성 (이질적 결합)								
제작 년도	1968	1978	1987	1990	2003	1990	1996-1997	2001-2002
극단과 과장 (정상 범주를 벗어난 형태)								
제작 년도	년도 미상	1969	1985	1993	2003	1990	1996-1997	2001-2002
웃음과 공포 (신랄한 웃음이 담긴)								
제작 년도	1969	1975	1987	1994	년도 미상	1991	1996-1997	2001-2002
비정상성 (신체 왜곡, 절단, 변형)								
제작년도	1968	1982/년도미상	1985	1990	년도 미상	1991	1996-1997	2001-2002

2. 그로테스크(Grotesque)

1) 그로테스크 개념

그로테스크(Grotesque)는 15세기 말 장식술(Ornamentik)로써 고대 로마의 폐허 속에서 발굴되었던 지하 건축물의 괴이한 무늬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다⁴⁰⁾. 이탈리아어로 동굴과 발굴을 의미하는 그로타(Grotte)에서 형용사와 명사인 라 그로테스카(La Grottesca), 그로테스코(Grottesco)라는 용어로 발생되었으며 1640년 그로테스크(Grotesque)로써 공상 속의 생물, 괴상한 인간 상, 꽃과 과일 등, 덩굴식물인 아라베스크에 벽모양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던 것들을 대칭과 법칙 등이 무질서한 이질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⁴¹⁾. 이후 그로테스크라는 용어는 16세기 프랑스, 18세기 영국과 독일에서 문학과 미술 이외의 건축분야까지 영향을 끼쳐 불규칙한 혼합과 기묘한 이미지를 칭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이 시대의 그로테스크는 특히 풍자적인 이미지로 표현되는 캐리커처(Caricature)와 연관성을 띠면서 우스꽝스럽고, 부자연스러운, 부조리와 자연에 대한 왜곡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런 특징은 신고전주의 시대에 이르러 조롱받고 배격받게 되는데 이는 자연적인 상태를 거부하고 무절제한 개인적 취향을 담은 조잡한 환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⁴²⁾.

18세기에 이르러 그로테스크를 미학적 범주로 확립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며 캐리커처 이론가인 빌란트(Christoph M. Wieland)가 중요한 역할을

40)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9045&Cid=40942&Categoryid=32856](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9045&Cid=40942&Categoryid=32856)

(2015년 11월 20일)

41) 볼프강 카이저 저, 이지혜 역(2011),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서울: 아모르문디, pp.42-43

42) 필립 톱슨, 김영무 역(1986), 그로테스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17-18

하게 된다. 빌란트는 캐리커처의 본질 규명을 시도하며 그로테스크의 미학적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⁴³⁾.

첫째, 그로테스크 창작물은 모방이 아닌 직설적인 상상력의 산물이다. 즉 환상적이고 허구적이며, 비논리적인 비현실의 범주에서 창작물이 성립됨을 의미한다.

둘째, 그로테스크는 모순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무질서한 지옥의 세계를 표현 대상으로 한다.

셋째, 기존의 법칙을 상실한 변형된 세계를 독자에게 직시하게 함으로써 내면의 진위를 관찰시키고 비판적 시각을 형성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독자는 놀라움, 공포, 우스꽝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표현 대상을 중립적이며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⁴⁴⁾. 이상의 빌란트의 견해는 그로테스크가 발휘하는 심리적 영향력을 짚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그로테스크는 캐리커처와 관련성을 부여받으며 뒤동그러진, 자연의 왜곡, 우스꽝스러운, 부조리, 부자연을 의미하게 되었고 전혀 이질적인 요소를 결합시킬 때 질서가 무너지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⁴⁵⁾.

1957년에 이르러 독일의 비평가 볼프강 카이저(Wolfgang Kayser)의 “예술과 문학에서의 그로테스크”가 출간됨으로써 그로테스크는 비로소 주목할 만한 미학적, 비평적 대상이 되었다⁴⁶⁾. 그는 그로테스크를 낯설어진 세계에 대한 표현, 소외된 세계의 표현, 부조리한 유희, 악마적 요소를 통제하여 쫓아내는 것을 본질로 규정하였다. 이는 분리되어있는 영역이 혼합되는 것으로 정적인 것의 파괴, 동일성의 상실, 균형의 파괴, 물질계의 붕괴,

43) 김승현(2005), “그로테스크 특성이 반영된 예술 분장의 연구”,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44) 차제순(1982), “F.Duerenmatt의 Der Besuch der alten Dame에서 나타난 그로테스크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10

45) 볼프강 카이저 저, 이지혜 역(2011), 전계서, p.61

46) 김홍희(1997), “미국 페미니즘 비디오 미술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04

질서의 해체, 개성적 개념의 파괴, 역사적 순리 분열 등을 말한다⁴⁷⁾. 그로테스크의 본질은 단순하게 저급한 현상이 아니며, 무서운 것과 우스운 것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모순을 통하여 존재의 근본적 문제를 표출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것이 카이저가 강조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⁴⁸⁾. 그의 주장을 옹호하는 논자들은 일차원적으로 과장된 익살과 우스운 공상으로 그로테스크를 치부하는 것을 배격하며 우스꽝스러운 유머와 괴기스럽고 역겨운 감정이 ‘공존’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즉 카이저의 저서를 통하여 양면적이고 대립적인 충돌은 존재의 근원과 문제를 드러내는 핵심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⁴⁹⁾.

이후 그로테스크의 정의는 러시아의 철학자 미하일 바흐친(Mikhail M. Bakhtin)의 신체적 비정상과 쾌락에 입각한 카니발 그로테스크(Carnival grotesque), 메리 루소(Mary Russo)의 정신적 요소를 중점으로 두는 언캐니 그로테스크(Uncanny grotesque)의 개념을 거쳐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정의를 시도한 필립 톰슨(Philip Thomson)에 의해 부조화성(이질적인 것들의 혼합과 충돌), 극단과 과장(가치질서를 위배하는 극단적 표현), 비정상성(양면적 감흥을 부여하는 부자연스러움), 웃음과 공포(부정적 의미의 유희성)의 4가지 특성으로 재정립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부정의 의미였던 그로테스크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인 ‘소외’와 연결되며 소외에서 시작되는 공포와 불안감, 강박관념은 개개인의 영역이나 체험과 관련이 있다⁵⁰⁾. 따라서 본 연구자는 그로테스크 예술 양식의 시대적 변천과 각 이론가들에 의해 정의된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알아보 고자 한다.

47) 김승현(2005), 전개서, p.5

48) 김선호(1983), Besuch der alten Dame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기법, 중앙대학교 대학원. p.6

49) 필립 톰슨, 김영무 역(1986), 전개서, p.19

50) 조영아(2013), “현대미술에서 그로테스크 표현연구 : 도그마티즘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3

2) 그로테스크 예술 양식의 시대적 변천

그로테스크는 현대 문명의 특유한 양식이 아니며 아주 예전부터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였다. 본 연구자는 그로테스크 예술 양식의 변천을 중세, 근세, 근대, 20세기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중세 시대

중세 초기 예술의 그로테스크는 인간보다는 신 중심적 표현이 주를 이루며 종교적인 특징을 보였다. 초기 그로테스크 양식은 여러 지역의 세공품이나 성당 내부의 무늬 등의 예술에 표현되었는데, 당시 게르만족 및 켈트족이 점령하던 지역에서 다양한 동물 신체 등의 형태가 왜곡되어 복잡한 무늬 형태로 발견⁵¹⁾되었다. <그림 9>은 중세 초기 양식을 짐작할 수 있는 괴수 ‘가고일’의 형상이다. 주로 조각상 기둥에 공상 동물을 비롯한 혼란스러운 조합의 형상⁵²⁾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중세 초기의 그로테스크 형상은 신 중심의 종교적 특징을 보이는데 객관적 사실 묘사보다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⁵³⁾.

(2) 근세 시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는 중세 초기 신 중심의 엄숙함을 추구하던 가르침을 기반으로 인간 중심의 덕과 이상을 옹호하는 시기였다⁵⁴⁾. 이 시기의 미술가들은 균형 대신 환상을 통해 부자연스럽고 왜곡을 표현을 시도했지만, 그로테스크의 기이하고 불합리한 형상과 표현들은 ‘추’의 범주로서 인정

51) 김영진(2004), “화예조형에서의 그로테스크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7

52) 신용준(2008), “그로테스크 아트퍼니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53) 이은기, 김미정(2012), “서양미술사”, 미진사, pp.98-99

54) 주해정(2013), “영상미디어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캐릭터 형태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1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전성기는 짧았으나 기존부터 지속되던 문화 양식과는 전혀 다른 거대한 변혁이었다⁵⁵⁾. 균형과 조화로움을 거부한 젊은 미술가들이 환상과 꿈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 것이다. 이후 미술가들의 회화적 표현이 점차 부자연스럽고 왜곡적인 표현으로 추구되는 형상으로 나아간 것으로 알 수 있다⁵⁶⁾.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슈(Hieronymus Bosch)는 네덜란드의 종교화가로서 ‘교훈’ 과 ‘종교’ 를 주제로 작품을 그렸으나 그로테스크적인 묘사로 ‘악마의 화가’ 라 불리기도 하였다⁵⁷⁾. 또한 유교와 도덕의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답게 뛰어난 풍자가 가미되어 세계의 가치를 뒤엎는 역 우주라든지, 종교적 섭리에 상충되는 종말론적 세계관을 표현했다. 이렇듯 그의 작품은 기묘함과 부조화를 이루는 불합리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로테스크한 형태뿐만 아닌 카니발 그로테스크의 육체의 관념까지도 대언한다⁵⁸⁾.

보슈의 “천국과 지옥” <그림 10>에서는 이브의 창조에서부터 악이 세상을 침범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은 역겨운 곤충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짐승과 인간, 혹은 기계의 결합으로 비자연적인 신체로 묘사된 악마들이 죄 지은 영혼들을 끔찍하게 처벌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⁵⁹⁾. 어떤 화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보슈는 그로테스크 양식을 자신의 공간에 확립하였으며 기괴한 작품으로 승화시켰다⁶⁰⁾.

후기 르네상스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조화와 이성보다 부조화스러운 감성과 상상력을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이 시대의 작가들과 시대적 경향이 창의적인 산물에 대한 욕구가 강했으며 이를 불안정한 표현 방

55) H. W. 켄슨, 이일 역(1988), 서양 미술사, 미진사, p.125

56) 상계서 p.125

57) 조영아(2013), 전개서, p.25

58) 박은경(2003), “패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41(10), p.90

59) E.H. 고프리치, 백승길, 이종승 역(2013), “서양미술사”, 서울:예경, p.270

60) 조영아(2013), 전개서, p.30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⁶¹⁾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작가들의 작품에 드러나는 인간의 신체는 거칠게 왜곡되어 길게 늘어지거나 뒤틀린 모습으로 표현되었다⁶²⁾.

16세기 네덜란드 출신의 피터 브뤼헬(Pieter Bruegel)의 작품은 그로테스크의 역사를 대변한다. 그의 작품 “죽음의 승리” <그림 11>에서는 높은 채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황폐하고 생명을 잃어가는 땅을 두드러지게 표현하였다. 작품 속 혼란스러운 죽음에 직면한 인간들은 체념과 저항의 모습을 보이며 해골인간은 고위 성직자와 순례자의 목을 찌른다. 해골을 가득 실은 죽음의 마차와 그물로 인간을 잡는 모습은 도덕적 빛을 피할 수 없으며 원죄에는 정당한 심판이 따름을 내포하고 있다⁶³⁾. 악의 무리는 현실과 같은 자연세계에 존재한다는 점을 어필하며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야기를 지옥의 깊은 심연을 통하여 드러내고, 작품을 접하게 되는 관람자로 하여금 경이로움과 두려움의 상반되는 모순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⁶⁴⁾. 작품 속 인간은 자연에 압도당하고 패배하는 인간으로 그림의 풍경과 자연은 낭만적이나 인간의 야성 앞에서 금세 사라져버린다.

브뤼헬의 특별하고 독특한 회화 양식은 인간의 비교와 대립 속에서 생겨난 것이며⁶⁵⁾ 관람자로 하여금 섬뜩한 공포를 유발하는 이유는 친숙한 세계가 와해되며 낯선 감정을 유발함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⁶⁶⁾.

(3) 근대 시대

17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그로테스크 특유의 웃음과 공포, 현실과

61) 캐롤 스트릭랜드, 김호경 역(2012), “클릭, 서양미술사”, 서울:예경, p.108

62) 상계서, p.109

63) 피에트로 알레그레티, 조반니 아르피노, 이지영 역(2010), “브뤼헬”, 서울:예경, p.114

64) 김한나(2003), 식물의 그로테스크 표현을 중심으로 한 장신구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8

65) 피에트로 알레그레티, 조반니 아르피노, 이지영 역(2010), 전계서, p.16

66) 조영아(2013), 전계서, p.35

비현실이 공존하는 양면성이 두각을 드러내며 그로테스크에 관한 정당성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⁶⁷⁾. 빅토르 위고(Victor Hugo)는 그로테스크의 본질이 공상에 치우친 것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숭고함이 갖고 있지 않은 미학적 부분을 그로테스크가 결합함으로써 고전주의를 넘어서는 낭만주의의 완벽한미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⁶⁸⁾. 결국 빅토르 위고의 주장과 함께 그로테스크는 낭만주의의 일부이자, 문학과 예술 영역에 미치지 못하던 과거에서 탈피하여 문학과 예술의 중심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추세는 이성에 대한 억압된 감성을 부흥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예술가들 또한 윤리적인 명분이 앞서는 것보다, 개개인의 내면에서 촉발하는 상상력에 중점을 두었다⁶⁹⁾.

낭만주의 시대의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de Goya y Lucientes)는 강제적인 표현의 금기와 억압이 가해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죽음과 공포, 삶의 모순성을 그로테스크한 작품으로 표현하였다⁷⁰⁾. 작품 “사투르누스” <그림 12>는 고야가 음울한 심리 상태에서 열 네점의 벽화로 완성한 ‘검은 그림’ 연작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사투르누스는 고대 로마의 농경신으로 아들 중 한명에게 왕좌를 빼앗긴다는 예언에 차례로 아들을 잡아먹는다. 이 작품은 신화의 재현을 넘어 인간의 타락과 전쟁의 폭력, 갈등을 상징하며 당시 병마와 싸우던 고야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괴기스러운 그로테스크 작품으로 표현하였다⁷¹⁾.

67) 신창규(1995), 뮌헨마트 회극의 근본구조로서의 그로테스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0

68) 이선화(2011), 전계서, p.36

69) 이은기, 김미경(2012), 전계서, p.354

70) 함순용(2009), “고야 판화연작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1

71) 네이버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27148&cid=40942&categoryId=33054> (2015년 11월 10일)

슐레겔(F.Schlegel)에 의하면 “낭만은 감상적인 소재를 환상적인 형식으로 묘사하는 것” 이라고 하는데 이때 “감상적 소재”란 정신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추구함을 뜻하며 “환상적 형식”은 그로테스크처럼 신선한 예술 형식을 일컫는다⁷²⁾.

즉 낭만주의 시대 그로테스크의 특징이란 논리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사고방식을 반대하여 걱정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상상을 구사하는 것을 의미 한다⁷³⁾. 이는 다시 말하면 무한한 상상력에 대한 동경과, 존재하는 그 자체의 생생함을 표현하기 위해 미적 표현뿐만 아닌 추함까지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20세기

19세기 말 상징주의 시대는 외관보다 내면의 세계를 중요시하는 관점에 이르렀다. 즉 미의 이상화가 아닌 형태를 왜곡한 그로테스크를 재현하여 외관에 치우친 세계를 뒤로하고 환상 속의 내면세계를 통해 진실을 깨닫고자 한 것이다⁷⁴⁾. 상징주의 작가들은 그로테스크적 특성을 성(性)을 주제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구현하였고, 환상 안에 존재하는 내면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통찰을 추구하며 아름다움의 이상화를 벗어난 왜곡의 형태로 재현하였다⁷⁵⁾.

상징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는 신화적인 이미지와 환상적인 귀족적 장식성을 작품에 그대로 결합하여 애욕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매력적으로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 ‘키스’ <그림 13>

72)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727&cid=272&categoryId=272/>,

(2015년 11월 10일)

73) 주해정(2013), 전게서, p.24

74) 캐롤 스트릭랜드, 김호경 역(2012), 전게서, p.228

75) 이영희(2010), “그로테스크적으로 표현된 바디페인팅에 관한 연구”,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6(3), p.351

은 연인들의 관능적이며 감정적인 결합에서 나오는 생명의 힘을 부각시킨 작품이다⁷⁶⁾. 남자는 젊은 여인을 부둥켜안음으로써 남성적 힘을 표현하고 있으며, 광채를 내뿜는 여인의 모습은 뇌쇄적이며 자극적인 기묘함을 선사한다⁷⁷⁾.

이러한 상징주의의 특징은 점차 표현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표현주의란 극적으로 왜곡된 그로테스크 표현과 과장된 신체 동작을 나타냄으로써 독자에게 충격적인 시각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현주의는 이미 일어나버린 현상적 개념의 범주이며 주로 ‘변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⁷⁸⁾. 변형은 작가가 대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하는데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의 경우 관능, 욕망, 질투와 같은 극단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과장된 색채를 사용하였다. 뭉크의 대표작 ‘절규’ <그림 14>는 양쪽 귀를 막고 괴로움에 소리치는 인간의 형상이 해골을 연상시키며 인간의 고뇌와 불안을 상징하는 걸작으로 칭송받아 그로테스크의 변형을 훌륭하게 표현했다⁷⁹⁾. 붉은 구름은 마치 불타고 있는 일몰의 형상으로 공포를 대담하게 조성한다. 이 작품은 표현주의의 걸작으로 칭송 받으며 광범위한 인간의 절망감을 충실하게 형상화하고 있다⁸⁰⁾.

20세기의 예술 전반의 흐름은 틀에 박힌 예술에 대한 거부와 함께 관례를 벗어난 표현의 욕구로 끊어올랐다. 이는 세계대전 이후 정신적 회의감과 함께 1919년부터 약 20년간 프랑스를 중심으로 초현실주의가 부흥됨에서 알 수 있다. 초현실주의는 억압된 인간의 욕망을 해방시키고 진실 된 자유를 추구하는 전위적인 문학, 예술 운동이었으며 비논리적인 무의식 영역의 내면과 진실을 표현하여 고의적으로 비이성적인 측면을 다루었다⁸¹⁾. 이 시

76) 마테오 키니, 윤옥영 역(2007), "클립트 : 세기말의 황금빛 관능", 서울:마로니에북스, p.76

77) 이은기, 김미경(2012), 전개서, pp.432-434

78) 최정화, 유영선(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한국복식학회 40, p.156

79) 송진희(2010), 미술 작품을 활용한 현대음악 감상 지도 방법론 : 표현주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9

80) 정금희, 조명식(2004), "에드바르트 뭉크", 서울:재원, p.14

대의 작품들은 초현실주의 사상이 반영되어 주로 신체를 다양하게 변형시킨 그로테스크 이미지를 볼 수 있다⁸²⁾. 전쟁에 대한 공포심은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과 상식적인 인식을 뛰어 넘어 환시적인 장면들로 탄생하게 되었다. 예술가들은 논리적이 아닌 무의식적 영역에 숨겨있는 진실을 꺼내서 인간의 생각, 혁명을 비롯한 억압, 인간이 놓지 못하는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였다. 즉 보편화 된 편견과 상식을 벗어난 환시적 표현을 형상화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⁸³⁾.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omingo Felipe)는 노이로제 증세를 기반으로 강박적이며 편집광적인 환각을 유발하여 사실적으로 자신의 환각을 표현한다⁸⁴⁾. 달리의 작품 “기억의 고집” <그림 15>는 살덩어리와 축 늘어진 시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시계는 유기물처럼 부패한 모습이며 파리와 개미 무리가 주위를 기어다닌다. 달리가 그린 사물은 그로테스크하게 왜곡되며 비현실적인 꿈 속의 광경을 담아낸다⁸⁵⁾.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의 작품 “믿을 수 없는 거울” <그림 16> 은 경우 무미건조한 시선 속에 하늘이 투영되는 부조리한 구성으로 불안정하고 상식을 벗어난 충격을 선사 한다. 마그리트에게 초현실주의는 그림에 표현되는 불충실성에 기인한다. 즉 믿을 수 없는 거울이란 작가가 바라보는 것을 드러내거나 감춰진 사물 속의 신비를 드러내는 매개체이다. 이와 같은 신비로움은 예술과 지성의 개입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다⁸⁶⁾.

1970년대에 이르러 영국에서는 자발적 비주류의 문화인 ‘고스(Goth)’

81) 캐롤 스트릭랜드, 김호경 역(2012), 전계서, p.266-267

82) 박은경(2003). “패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0). p.91

83) 상계서. p.91

84) 캐롤 스트릭랜드, 김호경 역(2012), 전계서, p.268

85) 상계서, p.269

86) 마르셀 파케, 김영선 역(2008), “르네 마그리트 : 1898-1967”, 서울:마로니에북스, p.26

가 청년 문화에 유행을 이끌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고스 문화란 중세시대의 화려하고 성스러운 예술양식을 의미하는 고딕의 의미로 쓰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재미없는, 기묘한, 야만적인 경멸의 의미로 사용되며 단절된 욕망을 어두움으로 해소하려한다⁸⁷⁾. 그러나 오늘날의 고스 문화는 죽음과 어두움을 나타내는 미학의 범주이자 그로테스크적 영역으로서 문화, 예술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위와 같이 그로테스크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예술에 적용되어 아름다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특유의 왜곡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포는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생물이 무생물이 되며, 일상의 익숙한 것들이 문득 낯설어지는 감정에서 나타난다. 현대 미술에서의 그로테스크는 환상 속에서 내면을 들여다보며 종래의 미의 기준을 탈피 한다. 이는 단순히 기준치 내의 예술이 아닌 그로테스크 특유의 왜곡된 특징이 독창적인 표현양식으로써 창출되며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87) 윤예진(2013), "현대 패션에 표현된 추(醜)의 미학 :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69-70



<그림 9> 가고일

(출처-<http://blog.naver.com/yejihanja/20170410996>)
(검색일자: 2015년 11월 30일)



<그림 10> 천국과 지옥

(출처-<http://jamesmar.egloos.com/m/1816757>)
(검색일자: 2015년 11월 30일)



<그림 11> 죽음의 승리

(출처-피에트로 알레그레티, 조반니 아르피노, 이지영 역, 2010, p.115)



<그림 12> 사투르누스

(출처-프란시스코 고야, 정금희 외 2인 역, 2005, p.4)



<그림 13> 키스
(출처-마테오 키니, 윤옥영 역,
2007, p.77)



<그림 14> 절규
(출처-정금희, 조명식, 2004, p.15)



<그림 15> 기억의 고집
(출처-이은기, 김미정, 2012,
p.269)



<그림 16> 믿을 수 없는 거울
(출처-마르셀 파케, 김영선 역,
2008, p.11)

3) 그로테스크의 특성

19세기 경 이론가들에 의해 그로테스크의 개념은 다양한 측면으로 정의되었으며 관점에 의해 점차 그 의미를 확실히 규명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그로테스크 특성을 정의한 이론가들의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그로테스크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 작품 제작 시 응용할 현대적 정의에 대한 고찰을 시행한다.

신체적 관점을 중시한 미하일 바흐친의 카니발 그로테스크, 심리적 범주를 중시한 메리 루소의 언캐니 그로테스크, 그로테스크의 본질을 규명한 볼프강 카이저의 모던 그로테스크의 특징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정의를 시도한 필립 톰슨의 이론과 대해 알아본다.

(1)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카니발 그로테스크(Carnival grotesque)

러시아의 비평가 바흐친의 경우 그로테스크의 기반을 육체의 원초적 쾌락으로 주장하였다. 그가 정의하는 그로테스크는 본질적이며 육체적인 것들을 난폭하고 극명하게 사용하지만 유쾌하게 찬양하는 것을 의미한다⁸⁸⁾. 바흐친이 정의한 카니발 그로테스크의 범주 속에는 인간의 성욕, 씹고 삼키는 것, 배설 등 쾌락적 요소를 추구하는 물질적인, 신체 중심의 개념들이 속해 있다. 의식적인 불거리의 형태인 쇼, 댄스, 외설적인 언어와 풍자가 카니발 그로테스크에 속한다. 입, 항문, 콧구멍, 생식기 등 열려있는 육감적 부위는 카니발 그로테스크의 신체적 이미지를 구성⁸⁹⁾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중들을

88) 필립 톰슨, 김영무 역(1986), 전게서, p.77

89) 김부영(2002), “현대미술에 나타난 신체성에 대한 연구: 신체성의 그로테스크 (grotesque) 적 표현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4

대표하며 보편적인 형상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물질적 신체의 근본과 단절됨을 반대함과 동시 다른 영역과 열려있음을 뜻한다. 여기서 그로테스크한 몸은 자신을 침범하는 한계를 극복하며 제 2의 신체를 창조하는 ‘이중 신체’⁹⁰⁾를 의미한다. 이 몸은 신체의 구멍이나 오목한 곳, 돌출된 부위가 열려있거나 외부와 근접한 부위들을 추구하며 모든 정형화된 형상으로부터 대립된 형상으로 유쾌하지만 자조적이고, 긍정하지만 동시에 부정적 성향을 보이는 양면적 가치를 드러낸다.

즉 카니발 그로테스크의 특징은 모던 신체, 고전 신체, 형이상학 신체, 예술적 신체 요소가 저항하는 저급한 형이하학적 물질적인 신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카니발 그로테스크는 대항적이며 위배적인 정치적 의미⁹¹⁾를 취득하게 된다.

카니발 그로테스크는 삶의 행위가 신체에서 형성되어 삶의 시작과 끝에 맞물림을 강조한다. 먹고 마시는 것과 배설, 땀 등 분비 활동을 포함한 성교와 임신, 다른 신체로 인해 절단되는 모든 행위가 신체의 경계에서 형성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행위들이 삶의 시작과 끝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함께 생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이란 소멸과 종말이 아닌 새 생명의 시발점이며 이것이 카니발 그로테스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⁹²⁾.

(2) 메리 루소(Mary Russo)의 언캐니 그로테스크 (Uncanny grotesque)

언캐니(uncanny)는 ‘기이하고 괴기한, 기분 나쁜, 신비스러운, 엄청난’의 의미를 내포⁹³⁾하며 경험의 순간에 느끼게 되는 두려움과 낯선 감정을

90) 상계서, p.44

91) 김홍희(1998), 진계서, p.285

92) 김부영(2002), 진계서, p.46

93)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뜻하는 단어이다.

친근하며 집처럼 낯익은 의미의 캐니(canny)와 낯설고 놀라운, 두려움의 의미인 언캐니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집의 주인에게는 집이라는 공간이 안락한 쉼터로 인식되지만, 타인에게는 신기하고 낯선 공간으로 인식된다. 즉 언캐니는 캐니와 반대의 의미이지만 캐니의 요소 속에 예속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⁴⁾.

카니발 그로테스크와 언캐니 그로테스크는 각각 신체적, 정신적 요소에 중점을 둔다. 바흐친의 카니발 그로테스크가 물질적인 신체에 중점을 둔 이론이라면, 언캐니 그로테스크는 정신분석학적인 범주에 중점을 둔 이론이다. 메리 루소는 볼프강 카이저의 모던 그로테스크 이론과 프로이드의 언캐니 개념을 통하여 언캐니 그로테스크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카니발 그로테스크와 대립하며 담론을 완성하였다⁹⁵⁾. 정신분석학적인 언캐니 그로테스크는 ‘무섭고 섬뜩한 심리’ 범주에 속하며 언캐니는 익숙한 무언가에 의해, 억압되었다가 다시 발현되어 두렵고 낯선 대상으로 느껴짐을 뜻한다. 프로이드는 인간이 친숙한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공포감이 언캐니의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인간은 문득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진 인형의 존재가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생명 없는 존재에 자아가 없는 것인지의 의심도 존재의 분별력을 혼란시켜 언캐니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다. 그 밖에 망령이나 영혼, 죽음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에서도 인간은 언캐니한 감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⁹⁶⁾. 언캐니 그로테스크는 카이저의 모던 그로테스크 이론과 같은 선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언캐니의 개념은 억압에 익숙해진 것이 억압을 거쳐 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5787&cid=48639&categoryId=48639>

(2015년 11월 10일)

94) 선영란(2008), “영국현대미술에서 나타나는 신체이미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9.

95) 김부영(2002), 진계서, pp.53-54

96) 김지혜(2001), 진계서, p.26.

자리로 돌아옴을 의미한다. 즉 언캐니한 감정이란 낯설어 보이는 소외의 세계에 대한 감정이다. 이런 감정이야말로 카이저가 말하는 낯설고 소외된 세계로 드러나는 그로테스크를 의미한다⁹⁷⁾.

(3) 볼프강 카이저(Wolfgang Kayser)의 모던 그로테스크(Modern grotesque)

카이저는 철저하게 그로테스크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카이저가 주장하는 그로테스크는 친숙한 세계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소외된 세계’의 표현이다. 예를 들어 낯설음이란 희극의 요소와 공포를 의미하는데 둘 다 포함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로테스크를 추구하는 예술가는 삶의 부조리를 희화하지만 이는 겁에 질린 채 시도하는 장난이며, 이런 방식을 통해 현 시대의 악마적 요소를 쫓아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카이저는 그로테스크의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겁치는 특질들을 열거하며 본질에 대한 뚜렷한 인지를 심어주었다⁹⁸⁾.

카이저는 그로테스크라는 본질이 미학적 범주의 의미를 부여받길 원했다. 따라서 그로테스크가 ‘포괄적인 구조 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즉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로테스크가 고유의 어떠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⁹⁹⁾. 이는 생명력이 없는 물체에서 느껴지는 불균형한 기이함의 공포를 말한다. 인형, 꼭두각시, 기계적인 인간, 가면처럼 경직된 얼굴 등은 잠재적으로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보이는 것들로 희극적이고 섬뜩함을 자아낸다. 그는 그로테스크가 보유한 본질적 특성이 기계적인 것과 유기체적인 것이 결합되며 드러나는 기이한 불균형이라 규정

97) 김부영(2002), 전계서, p.55

98) 필립 톰슨, 김영무 역(1986), 전계서, pp.24-25

99) 상계서, p.25

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어 끔찍함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인간과 동일성을 지니고 질서를 이루는 반면, 혼돈 상황에서는 질서의 위협을 암시하기 때문이다¹⁰⁰⁾.

인간을 완성하는 구조가 하나의 양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카니발 그로테스크는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희극적 장르’이다. 반면 카이저와 메리 루소의 모던, 언캐니 그로테스크 개념은 심리 범주의 ‘비극적 장르’이거나 ‘공포적 장르’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카니발과 모던, 언캐니의 개념은 상충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강조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¹⁰¹⁾.

그로테스크는 공포와 희극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악마적인 것을 추방하는 특징을 보유하며 그로테스크의 요소에서 유발되는 웃음이란 결코 자유롭지 않다. 기쁨과 환희의 순간을 만끽함과 동시 역겨운 것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극적 웃음이 자조적인 고통의 웃음으로 변모하는 상황과 끔찍한 상황에서 희극적인 것이 스며드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로테스크는 역겹고 끔찍한 모습을 이끌어내며 희극적인 관점을 도입한다. 볼프강 카이저가 주장한 ‘악마적인 것의 추방’은 이처럼 공포를 표면에 각인시켜 해로움을 덜게 한다는 것과 유사하다¹⁰²⁾.

(4) 필립 톰슨(Philip Thomson)의 그로테스크

톰슨은 문학작품 속의 그로테스크를 가리켜 기괴함과 역겨움을 동반하며 희극적인, 희화스러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칭하였다. 그가 말하는 그로테스크는 두렵고 소름끼치는 작품 속의 내용과는 상충되는 희화된 표현

100) 윤성혜(2007), 전계서, p.17

101) 김부영(2002), 전계서, p.54

102) 필립 톰슨, 김영무 역(1986), 전계서, pp.87-88

양식 사이의 충돌에서 나타나는 감흥을 말한다¹⁰³⁾. 편안함과 불안정함, 웃음과 공포와 같이 양립이 불가능한 이질적인 특성들이 어우러지는 기묘한 관련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수립되는 양면성의 충돌, 감흥이 그로테스크의 미학을 정의하는 것이고, 과도하고 과장된 정도를 넘어선 초과적인 무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강조되었다¹⁰⁴⁾.

필립 톰슨은 아래와 같이 그로테스크의 현대적 특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① 부조화성

그로테스크의 특징인 부조화성은 이질적인 것들의 혼합되거나 어울리지 않는 융합으로 갈등을 겪고 충돌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부조화성은 예술가 특유의 창조적인 기질이나 예술가의 작품 그 자체에서도 나타나며 작품을 통해 발생하는 반응과 다양한 심리적 구조 속에서도 드러난다¹⁰⁵⁾. 따라서 부조화성은 부조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희극적 잔혹성의 혼합을 기반으로 표현된다¹⁰⁶⁾. 부조화성은 상반되고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으로 낯선 당황스러움과 자극적인 충격을 부여하는 특징인 것이다.

② 극단과 과장

그로테스크는 정상의 상태를 벗어나 과장된 극단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특질은 공상과 환상적인 상상과 연관되어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¹⁰⁷⁾. 극단과 과장성은 당황스럽고 희극적인 공상적 요소로서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

103) 김유경(2002), “무대의상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104) 필립 톰슨, 김영무 역(1986), 전계서, p.14

105) 상계서, p.27

106) 여명(2009), Grottesque의 표현요소를 통한 애니메이션 연구, 동명정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7

107) 김영진(2004), 전계서, p.32

에서 수월하게 표현되며 현실과 비현실이 교묘하게 얽힌 가치 질서를 위배하는 극단적 표현으로 현실을 더욱 강조함¹⁰⁸⁾을 뜻한다.

③ 비정상성

그로테스크의 특징인 비정상성이란 우습다, 즉 ‘재미있거나 이상하거나’의 양면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부자연스러운 특징을 뜻한다. 인간은 단조로운 일상에서 규범화 되어있는 틀을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을 경우 흥미로움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쾌감과 흥미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것으로 인식되고 그러한 체험은 공포심과 역겨움¹⁰⁹⁾으로 변모한다. 톰슨은 이처럼 대립되는 양면적 감정의 동시 체험을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라 정의 하였다. 그로테스크에 내재되어있는 비정상성은 발현되는 방식부터 직접적이며 과격하며 저속하고 거칠게 받아들여지는 양상을 보인다. 가령 진실에 대한 모독을 문제 삼거나 도덕적인 양상을 왜곡한다든지, 무의미한 과장과 역지로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것이다¹¹⁰⁾. 반면 그로테스크의 비정상성이 메이크업에 접목되었을 경우, 정형화 된 미의 표현에 식상함과 지루함을 느끼는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요소로 적용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계승되던 가치관을 탈피하여 인간 내면의 고통, 현실의 모순을 파격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파급력이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¹⁾.

④ 웃음과 공포

그로테스크의 특징인 웃음과 공포란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본능적인 심

108) 이해립(1988), Thomas Mann의 초기단편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현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

109) 필립 톰슨, 김영무 역(1986), 전계서, p.33

110) 상계서, p.36

111) 이선화(2011), 전계서, p.39

리로 경멸과 조롱이 담긴 웃음이 공포로 뒤바뀌는 혼합 형식이다. 웃음과 공포의 요소는 그로테스크에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웃음과 공포를 혼합되어 있는 형식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최근의 경향이다¹¹²⁾. 그로테스크에 나타나는 웃음은 긍정적인 의미의 웃음이 아닌, 신랄함을 담고 있다. 또한 경멸과 조롱이 함께 뒤섞여 결국에는 악마적인 웃음의 특질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웃음이란 이름의 공포로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혼란스러운 세대에 대한 반응으로 본능적 방어 심리를 대변한다¹¹³⁾.

그로테스크 안에서의 웃음은 자의에 의한 웃음이 아닌, 모순을 끌어안은 강제적 웃음이라는 점에서 유머, 유희와 차별화 된다. 즉 현실을 벗어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유희성을 뜻한다¹¹⁴⁾.

이상 그로테스크 특징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112) 필립 톱슨, 김영무 역(1986), 전계서, p.28

113) 장미숙, 양숙희(2000), 전계서, p.439

114) 이정후(1998),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6

<표 3> 그로테스크 특성 분류

구분	개념	핵심 특징	결론
필립 톰슨	4가지 특성 (부조화성, 극단과 과장, 비정상성, 웃음과 공포)	양면성의 충돌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유희성이 존재함	그로테스크를 현대적 정의로 4가지 특성으로 분류
미하일 바흐친	카니발 그로테스크	물질적 신체 추구 삶의 행위가 죽음과 생명의 시초임을 강조	신체를 강조한 범주의 희극적 장르
메리 루소	언캐니 그로테스크	섬뜩한 심리 범주 존재에 대한 의심 분별력의 혼란	심리를 강조한 범주의 비극적 장르 공포적 장르
볼프강 카이저	모던 그로테스크	불균형한 기이함 공포를 표면에 각인 악마적인 것을 추방	

3. 아트 메이크업 (Art make-up)

1) 아트 메이크업의 개념

아트 메이크업은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와 사상을 이미지화 하는 작업으로 인간의 신체를 통하여 창조적인 발상과 예술적 표현을 과감한 시각으로 나타내는 독창성을 근본으로 한다¹¹⁵⁾. 따라서 모방이 아닌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야하는 발상과 전달 표현 능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최근의 아트 메이크업은 회화와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예술로써 순수 예술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격식이나 편견 없이 자유롭게 융합됨으로써 광고, 쇼, 홍보 등 대중매체와 상업 예술분야에서도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 방식이 긍정적 의미로 이용,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⁶⁾. 인간의 육체를 재조형 한 예술로써 주제, 색, 표현, 기법, 재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시각적 표현을 극대화시켜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술 장르임을 의미한다¹¹⁷⁾. 예술성과 실험적 표현을 추구하는 아트 메이크업은 조형 예술의 한 분야로써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의해 언어로 구사하기 어려운 예술적 감각과 무한한 발상을 모델의 신체에 표현 한다¹¹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역할은 얼굴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대의 문화와 이상을 기발한 발상으로 반영하여 인물과 인체를 디자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¹¹⁹⁾. 즉 현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며 시대를 뛰어넘는 표현으로 대중에게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는 주축이 되기 때문에, 신선한 모티브

115) 오인영 외 2인(2010), "Art make up design", 서울:훈민사, p.10

116) 이화순 외 6인(2003), "The Art of Makeup", 형실출판사, p.9

117) 천지연 외 5인(2013), "Art & character make up", 서울:청구, p.11

118) 상계서, p.8

119) 신원선(2012), "아트 메이크업 교육을 위한 MIS 디자인 발상 프로세스",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8

를 부여하고 내적 의사전달의 원활한 표현을 돕는데 기여해야함을 의미 한다¹²⁰⁾.

현재 아트 메이크업의 시도는 현대 예술 사조와 흐름을 같이 하며, 신체에 참신한 소재와 기법을 적용하여 전위적 종합 예술을 시도하는 거대한 예술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¹²¹⁾.

2) 아트 메이크업의 유형

아트 메이크업은 인체의 형태와 굴곡, 색채의 사용을 적절하게 융합시키는 예술이며 개개인의 창의적인 발상을 회화적으로 표현한다¹²²⁾. 본 연구자는 아트 메이크업의 유형을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판타지 메이크업(Fantasy Make-Up),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1) 페이스 페인팅

페이스 페인팅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추상적인 주제를 정하여 얼굴을 바탕으로 화장용 물감과 브러시를 이용하여, 작은 부위에 포인트로 그리거나 혹은 전체를 그리는 것을 말한다¹²³⁾. 현대인들은 개인의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시위, 축제, 가장 무도회, 응원 등 다양한 행사와 시각적 매체에서 페이스 페인팅을 사용하는데 이는 자아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얼굴에 목적과 의미를 표현하는 광고의 기능을 기반으로 한다¹²⁴⁾. 축제나 응원에서는 재미와 흥을 돋우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환상적이고 특색 있는 개성 표현

120) 김영숙 외 5인(2006), "ART MAKE-UP", 도서출판예림, p.10

121) 천지연 외 5인(2013), 전개서, 서울:청구. p.19

122) 상계서, p.32

123) 노효경 외 2인(2006), 전개서, p.182

124) 이영희(2007), 전개서, p.29

의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이르러 광고, 뮤지컬, 영화, 이벤트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다.

(2) 판타지 메이크업

현대 메이크업의 한 종류인 판타지 메이크업이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상상력과 현실을 결합할 수 있는 표현 예술이다. 작가의 신선한 상상력을 무제한으로 발휘하는 분야이며 주로 일상적으로 형식화 된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형상화 되어있지 않은 주제를 작가의 상상으로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대부분이다¹²⁵⁾. 때문에 작품 제작에 앞서 구체화할 이미지를 얻고자 일러스트레이터 이미지 틀을 응용하여 완성도를 높이기도 한다. 또한 뛰어난 상상력과 창의성을 요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고 독특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과장되고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판타지 메이크업은 감정을 중요시하는 감성적인 메이크업 분야이며 피부는 구체적인 표현과 추상적인 표현 두 가지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 즉 기쁨이나 슬픔, 천사, 요정 등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는 추상적인 방법과 실물로 확인 가능한 목표를 구현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아트 메이크업에서 표현되는 피부의 질감과 컬러는 감정표현의 도구로 사용된다. 분노와 공포, 수치감을 비롯한 다양한 감정에 따라 피부 색, 털, 질감은 다양하게 표현된다¹²⁶⁾. 주로 화려하고 독특한 과장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반짝이, 깃털, 펄, 원단 등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¹²⁷⁾되며 현재는 축제나 무도회, 파티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음악과 무용, 연극, 뮤지컬 등의 무대 예술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25) 이현진(2014), 전계서, p.35

126) 이영희(2007), 전계서, p.27

127) 권경애(2000), “눈 메이크업이 안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3) 바디 페인팅

바디 페인팅이란 시각적 표현이 가능한 소재와 모티브를 인간의 몸에 재구성하여 모델, 관중, 음악, 무대, 조명, 작가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완성되는 종합 예술이라 할 수 있다¹²⁸⁾. 신체를 매개로 하는 바디 아트에 속하며, 얼굴과 몸 전체를 캔버스로 이용하며 내적 이미지 세계를 전신에 확장한 미적 표현인 것이다¹²⁹⁾. 바디페인팅은 물감을 이용하여 전신에 색을 칠하며 작품을 완성하는데, 주로 자연에 서식하는 것을 양식화하여 예술적 메시지를 시각화한다. 반면 굴곡으로 이루어진 신체 위에 그리는 표현방식이기 때문에 입체 구조를 파악하고 디자인해야 하며 작품 보존이 어렵다는 점이 아쉬움을 주지만 생동감이 주는 감동이 있고, 다채로운 변화와 표현이 가능하며 영상매체로 보존 할 수 있다¹³⁰⁾.

따라서 바디 페인팅은 신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료와 기교를 적용하여 예술의 극치를 구현하는 예술 분야의 하나로서 신체가 예술의 행위자임과 동시에 예술 형태 그 자체인 것이다¹³¹⁾.

3) 아트 메이크업의 기법

동일한 주제라 하더라도 표현 기법에 따라 전혀 다른 디자인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기법은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아트 메이크업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을 페인팅 기법(Painting Technique), 오브제 기법(Object Technique), 에어브러시 기법(air brush), 컴퓨터 그래픽 기법(Computer Graphics

128) 김양은 외 3인(2009), "Art make up", 파주:광문각, p.21

129) 신원선, 권태순(2014), 전계서, p.18

130) 이영희(2007), 전계서, p.31

131) 천지연 외 5인(2013), 전계서, 서울:청구, p.35

Technique))으로 분류하여 알아보고자 한다¹³²⁾.

(1) 페인팅 기법

주로 아트 메이크업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페인팅 기법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적이거나 추상적인 묘사로 표현하는 것이다. 유성 물감이나 수성 물감을 브러쉬와 새도우를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밀묘사 작업을 통해 인체의 선을 고려하며 작품을 표현하기 때문에 페인팅 기법을 사용한 작품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더욱 강하다¹³³⁾.

(2) 오브제 기법

오브제 기법이란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작품에 반영하는 것이다. 깃털이나 원단 조각, 돌, 나뭇잎 등을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작품에 필요한 오브제로 활용하는조형적 의미를 지니며 표현적 수단으로 접근 되는 것이다¹³⁴⁾. 오브제 기법은 메이크업 작업 시 기존 화장품으로 줄 수 있는 효과 이상의 질감을 표현하기 수월하다. 주제에 부합하는 소재로 원단, 비즈, 깃털, 스톤 등을 활용¹³⁵⁾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처럼 현대 아트 메이크업은 특색 있는 소재와 재료의 혼합으로 더욱 더 창의적인 조형예술 표현을 추구하면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3) 에어브러시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은 콤프레서(compressor)기계를 사용하여 일정한 공기

132) 산업자원부(1998), 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 접목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진흥원, p.50

133) 이현진(2014), 전계서, p.39

134) 신원선, 권태순(2014), 전계서, p.24

135) 이윤선(2011). “조르주 쇠라의 점묘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 제작”,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의 압력으로 물감을 밀어내는 방식의 기계적 분사 기법이다¹³⁶). 기본 브러시로 칠하는 형태의 페인팅 기법과는 달리 에어브러시는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색상과 신속한 표면 처리, 세밀한 표현, 음영 및 입체적 그라데이션 표현이 강점이다¹³⁷). 기계를 사용한 작업 방식과 편리한 그라데이션 효과로 시간 단축 및 작업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점차 선호되고 있다¹³⁸).

(4) 컴퓨터 그래픽 기법

컴퓨터 그래픽 기법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굴곡 된 형상에 따라 이미지 툴로 작업하는 정교한 방식이다. 주로 어도비 포토샵을 활용하여 작업에 사용하는데 이는 현대 컴퓨터 그래픽의 놀라운 성장으로 작품의 시각적 효과를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준다¹³⁹). 또한 작업에 포토샵을 적용했을 때 수작업보다 빠른 시간 단축과 질감 및 색상 보정, 합성 및 변형과 왜곡이 수월하다. 21세기 발전된 기술로 인해 디지털 아트라는 예술 분야가 확립되었으며, 메이크업과 같은 예술과도 접목되어 표현의 다양성을 돕는다¹⁴⁰).

136) 안나현(2014), "디자인 원리를 적용한 아트메이크업의 감성이미지 표현",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

137) 천지연 외 5인(2013), 전개서, p.72

138) 이현진(2014), 전개서, p.41

139) 안나현(2014), 전개서, p.13

140) 신원선, 권태순(2014), 전개서, p.28

Ⅲ. 작품 제작

1. 제작 의도 및 방법

본 연구는 침울함 속의 고독과 몽환적인 죽음을 표현하는 폴란드 출신 환시미술의 거장 지슬라브 벅진스키의 작품에 필립 톰슨의 그로테스크 특성을 접목시켜 아트 메이크업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작품 제작에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보았던 그로테스크의 특성 중 그로테스크의 특성을 가장 현대적으로 수립한 필립 톰슨의 그로테스크 특성(부조화성, 극단과 과장, 웃음과 공포, 비정상성)을 벅진스키의 작품과 결합하여 작품 분류 및 디자인 제작에 돌입하였다. 본 연구자는 현 시대의 문제점을 가장 현대적이며 극적인 그로테스크적 표현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필립 톰슨의 특성을 작품에 적용하였으며, 각 특성에 부합되는 벅진스키의 원작을 2점씩 선정하여 총 8점의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자는 작품 제작을 통하여 결여된 창의성의 회복과 다양한 분야의 예술 창작에 파격적인 모티브가 되길 바라는 목적에서 제작에 임하였다. 작품 제작 시 포토샵 작업 및 일러스트를 접목시켜 단순한 메이크업 아닌 아트 작품으로써의 표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벅진스키의 제작 유형과 동일하게 드로잉, 페인팅, 합성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분류와 디자인 계획은 총 8종으로 <표 4>와 같다.

<표 4> 백진스키의 그로테스크 작품 분류 및 디자인 계획

특성	부조화성		극단과 과장		웃음과 공포		비정상성	
백진스키 작품								
백진스키 작품의 특성	해양식물 및 철물 부조의 이질적인 결합		과장된 묘사와 극단적 표현		기묘한 분위기의 희극적 묘사		신체의 파괴와 왜곡 비인간적 이미지	
디자인 드로잉								
작품 제목	시련	환상적 도피	삶과 죽음	고독	무채색 웃음	스마일마스크 증후군	탐욕의 괴물	청춘의 소멸
작품설명 및 제작의도	삶의 시련을 견디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의 모순을 표현함.	각박한 현실의 도피처가 되어버린 인간의 환상을 형상화함.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세계를 과장의 형태로 형상화함.	사회적 문제인 따돌림으로 인하여 고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을 표현함.	타인의 시선에 억눌려 인형이 되어가는 현대인을 비판함.	현대 사회의 문제점인 감정 노동자들의 심연을 표현함.	물질 만능주의로 물들어가는 현대 사회를 비판함.	인생의 빛나던 순간들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형상화함.

2. 작품 제작

1) 작품 I - 시련

(1) 그로테스크 특성 - 부조화성

(2) 디자인 의도



작품 I ‘시련’은 백진스키 미술관의 11번 방 1987년 원작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은 살아 움직이는 해골의 형상과 철물부조가 이질적으로 혼합되어 부조화성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본 연구자는 인간과 철물 부조, 디지털 그래픽의 혼합이라는 부조화성을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고된 시련을 형상화하였다. 잿빛 피부 위에 부착한 철제 고리와 얼굴 라인으로 이어지는 둔탁한 질감은 기계화 되어가는 차가운 금속성의 딱딱한 느낌을 자아내며 고단한 시련으로 생긴 상처와 굳은살을 의미한다.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과 뒤를 돌아보는 모습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수 없는 좌절로 인해 나약해진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한다. 반면 신체의 중앙부터 뻗고 있는 손으로 휘몰아치는形形色색의 디지털 그래픽은 혼란스러운 현대 시대의 과속화된 모습으로, 변모하는 시대의 시련을 버텨야만 생존할 수 있는 현실에 회색빛 시련의 계단을 올라가야하는 모순을 표현하였다.

작품 I의 디자인 드로잉은 <표 5>에 제시하였다.

(3) 제작 과정

- ① 피부 톤 보다 어두운 셰이딩 파운데이션으로 차분하고 뚜렷한 피부를 연출한다.
- ② 은색 펠 피그먼트로 눈 주변과 인중, 입술 주변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표현한다. 눈 주변에 철제용 고리를 붙여 기계화 되어가는 현대의 모습을 그려낸다.
- ③ 펠이 함유된 갈색 스틱 새도우를 사용하여 눈두덩의 음영감을 부여하고, 망사 원단과 스틱 새도우를 혼합하여 페이스 라인에 둔탁한 질감을 표현한다.
- ④ 은색 피그먼트로 윤곽을 살린 입술 중앙에 위와 같은 스틱 새도우를 사용하여 신비한 메이크업으로 완성한다. (그림 17)
- ⑤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하여 배경 이미지를 합성하고 다양한 각도로 촬영한 인물 사진을 구도에 맞게 합성한다. 이후 디지털 그래픽 효과를 신체에 적용하여 최종 아트 작품을 완성한다. (그림 18)

<표 5> 작품 I - 디자인 드로잉

작품 I - 디자인 드로잉	
	
구 성	내 용
주 제	시련
그로테스크 특성	부조화성
색상	
재료	웨이딩 파운데이션, 펄 피그먼트, 스틱 새도우, 하이라이터, 철제 고리, 망사 원단



<그림 17> 아트 작품 I 「시련」 메이크업



<그림 18> 아트 작품 I 「시련」

2) 작품 II - 환상적 도피

(1) 그로테스크 특성 - 부조화성

(2) 디자인 의도

작품 II ‘환상적 도피’는 백진스키 미술관의 10번 방 1978년 원작을 재해석한작품이다. 원작은 사람의 형상과 해양식물이 이질적이지만 신비롭게 혼합되어 부조화성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본 연구자는 푸른빛의 형상과 현실의 인간이 아닌 듯한 여성의 조합이라는 부조화성을 통해 환상적 세계를 형상화하였다. 여성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듯 이어지는 신비로운 푸른빛 줄기는 인어의 비늘을 연상시키며 무의식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잉태되는 꿈과 환상을 의미한다. 분홍색 속눈썹, 생기 없이 창백한 얼굴에 물들 듯 퍼지는 푸른 색채, 촉수를 연상시키는 머리카락은 현존하는 현실의 인물이 아님을 은연 중 드러내며 각박한 삶 속에서 도피처가 되어버린 꿈 속 환상이 인물화 되어 형상화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여성의 손 안에서 빛나는 것은 무엇이든 이뤄줄 수 있는 환상의 결정체이지만 이는 현실에서 결코 이뤄질 수 없는 도피적 허상일 뿐이다.

작품 II의 디자인 드로잉은 <표 6>에 제시하였다.

(3) 제작 과정

- ① 밝은 톤의 파운데이션으로 밝고 깨끗한 피부를 연출한다.
- ② 은색 펠 피그먼트로 눈썹 뼈 부위와 T존 인중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표현한다.
- ③ 펠이 함유된 파란색 크림 새도우를 눈가부터 번지듯 피어나는 형상으로 발라주고 입술을 채워 발라준다.
- ④ 붓펜 아이라이너로 인어의 비늘을 연상시키는 무늬를 그린 뒤 은색 리퀴드 글리터로 화려함을 더한다.
- ⑤ 블랙 마스카라로 눈썹 곁을 살리듯 강인하게 살려주고 분홍색 마스카라로 속눈썹에 신비감을 더해주었다.
- ⑥ 스펀지를 사용하여 피그먼트를 윤곽 부위에 얹어주고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그림 19)
- ⑦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하여 눈가의 디자인과 비슷한 비늘의 형상을 배경으로 합성한 뒤 빛 효과를 손바닥 안에 적용하여 최종 아트 작품을 완성한다. (그림 20)

<표 6> 작품 II - 디자인 드로잉

작품 II - 디자인 드로잉	
	
구 성	내 용
주제	환상적 도피
그로테스크 특성	부조화성
색상	
재료	파운데이션, 크림 섀도우, 필 피그먼트, 붓펜, 리퀴드 글리터, 마스카라, 스펀지



<그림 19> 아트 작품 II 「환상적 도피」 메이크업



<그림 20> 아트 작품 II 「환상적 도피」

3) 작품 III - 삶과 죽음

(1) 그로테스크 특성 - 극단과 과장

(2) 디자인 의도

작품 III ‘삶과 죽음’은 백진스키 미술관의 13번 방의 2003년 원작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은 정확한 존재를 알 수 없는 과장된 인물과 기묘한 문양의 형상이 캔버스 전체를 채우며 극단과 과장성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본 연구자는 인물의 얼굴을 바탕으로 생명의 잉태와 죽음이 공존하는 세계를 극단과 과장의 특성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녹색과 붉은색의 보색이 혼합된 교묘한 피부 바탕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이 공존하는 수많은 인생 그 자체를 의미한다. 얼굴을 관통하는 주변의 구조물은 삶에서 파생되는 행위를 비롯한 시작을 의미하며 눈가에 그려진 나침반 문양은 시작과 끝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삶과 죽음이 순환하며 반복됨을 명시하는 매개체로 표현해보았다. 결국 작품을 가득채운 얼굴은 삶과 죽음이 만나고 헤어지는 순환점이며 공존하는 세계인 것이다.

작품 III 의 디자인 드로잉은 <표 7>에 제시하였다.

(3) 제작 과정

① 더마왁스로 눈썹을 커버하고 피부 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으로 깨끗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준 뒤 녹색 펠 피그먼트와 주황색 피그먼트로 피부를 물들이듯 그라데이션 표현을 한다.

② 하이라이터를 파우더 브러시에 묻혀 전체적으로 광택감을 부여한다.

③ 은색 펠 피그먼트로 눈썹 뼈 부위와 T존 인중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표현한다.



④ 녹색 펠 크림 새도우로 오른쪽 눈두덩을 둥글게 그라데이션 음영감을 준 뒤 젤 아이라이너로 강렬한 아이라인과 나침반 문양을 표현한다. 아이라인이 마르기 전 부드럽게 컬러를 블렌딩하여 깊이감을 부여한다.

⑤ 펠 카키색 젤 아이라이너로 왼쪽 눈두덩을 강하게 라인 표현을 해준 뒤 컬러를 블렌딩한다.

⑥ 하이라이터로 입술에 광택감을 살린 뒤 투명 글로스를 입술 중앙에 도포하여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그림 21)

⑦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하여 얼굴에서 파생되는 삶의 순환을 그래픽 작업으로 연출하고 채도를 높힌 뒤 최종 아트 작품을 완성한다. (그림 22)

<표 7> 작품 III - 디자인 드로잉

작품 III - 디자인 드로잉	
	
구 성	내 용
주 제	삶과 죽음
그로테스크 특성	극단과 과장
색상	
재 료	더마왁스, 파운데이션, 크림 섀도우, 펄 피그먼트, 젤 아이라이너, 하이라이터, 립글로스



<그림 21> 아트 작품 III 「삶과 죽음」 메이크업



<그림 22> 아트 작품 III 「삶과 죽음」

4) 작품 IV - 고독

(1) 그로테스크 특성 - 극단과 과장

(2) 디자인 의도

작품 IV ‘고독’은 백진스키 미술관의 10번 방 1969년 원작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은 해골에 근접할 정도로 뼈의 골격이 도드라지는 인간이 홀로 앉아 흉부에 있는 붉은 점과 함께 자신의 존재를 극단적이며 과장된 형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본 연구자는 극단과 과장성의 특성을 접목시켜 현대 사회 만연한 따돌림이라는 문제점으로 인해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아픔을 표현해보았다. 붉게 굵힌 피부와 갈라진 꽃잎은 외로운 현실에게서 부여받은 수많은 생채기를 의미하며 굵게 자리 잡은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진 흉터를 의미한다. 고개를 떨군 뒷모습은 따돌림의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하는 외로움을 표현하였으며, 현재는 초점 없는 시선으로 적막 속에 홀로 머무르며 형체도 알 수 없이 굵아버린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작품 속 인물에게 붉은색은 화려함이 아닌 상처의 색이며 머리카락조차 자유롭지 않게 인물을 움아매고 있다. 작품은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으로써 유리처럼 쉽게 깨질 것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겹겹이 쌓아 숨긴 채 고독함 속에 묻혀 살아가는 극단적인 현실을 극적으로 표출하였다.

작품 IV의 디자인 드로잉은 <표 8>에 제시하였다.

(3) 제작 과정

① 더마왁스로 눈썹을 커버하고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깨끗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 준 뒤 둔탁한 질감을 위해 붉은 피그먼트를 뿌리듯 표현한다.

② 하이라이터를 파우더 브러시에 묻혀 얼굴 중앙 부위에 신비로운 광택감을 부여한다.



③ 깊이 있는 눈매 표현을 위해 갈색 인조 속눈썹을 붙인 뒤 눈 주변부터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문양을 세로 방향으로 그려주고 갈색 섀도우로 음영감을 표현한다.

④ 조화 꽃잎을 불규칙하게 자르고 눈꼬리에서 퍼져 나가듯 부착한다.

⑤ 붉은 색 틴트를 입술 중앙에 발라주고 거칠게 블렌딩하여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그림 23)

⑥ 어도비 포토샵으로 각도 별 촬영한 인물 사진을 구도에 맞게 합성하고 그래픽 작업과 사진을 혼합하여 기괴하고 암울한 느낌의 배경과 심장의 상처를 덧 입혀 최종 아트 작품을 완성한다. (그림 24)

<표 8> 작품 IV - 디자인 드로잉

작품 IV - 디자인 드로잉	
	
구 성	내 용
주 제	고독
그로테스크 특성	극단과 과장
색상	
재료	더마왁스, 파운데이션, 하이라이터, 조화, 리퀴드 아이라이너, 턴트, 갈색 새도우



<그림 23> 아트 작품 IV 「고독」 메이크업



<그림 24> 아트 작품 IV 「고독」

5) 작품 V - 무채색 웃음

(1) 그로테스크 특성 - 웃음과 공포

(2) 디자인 의도

작품 V ‘무채색 웃음’ 백진스키 미술관의 10번 방 1975년 원작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은 표정을 짐작하기 어려운 거구의 인간이 거대한 머리카락과 햇불을 휘날리며 웅장함을 표출하는데, 화려함 속에 자리 잡은 존재의 표정과 목적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 본 연구자는 타인의 시선에 본인의 가치를 결부시켜 개성과 자율성을 포기한채 인형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문제점을 웃음과 공포의 특성으로 접목시켜 비판하였다. 작품의 존재는 보편화된 현대인을 의미하는 무채색 속에서 보란 듯이 정 반대인 원색의 색채를 뿜어내려 능동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회색으로 덧칠해진 눈의 음영은 뼈에로와 같은 공장의 인형의 모습이 되어가는 현대인을 나타내지만 중앙을 가로 짓는 은색 선은 그 틀에서 벗어나려는 균열을 의미한다. 다른 한 면은 강인한 눈매 표현과 입술 본연의 색에 립 라인을 뚜렷하게 칠함으로써 밋밋한 무채색 존재와는 정 반대인 강렬한 인상을 준다. 똑같이 타인을 따라하며 안정을 찾는 무채색의 현 시대 속에서 작품 속 존재는 변화와 균열의 파장을 시도하며 강력하고 굳건하게 자신을 피력 하여 무채색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자각을 일깨우는 희극적 공포감을 선사한다.

작품 V의 디자인 드로잉은 <표 9>에 제시하였다.

(3) 제작 과정

① 터마왁스로 눈썹을 커버하고 매트한 파운데이션으로 균일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준 뒤 오른쪽 얼굴에 셰이딩으로 음영감을 주고 파우더로 유분기를 제거한다.

② 회색 섀도우를 넓게 십자가 모양처럼 왼쪽 눈가에 표현하고 아이홀과 언더 부위에 검은색 섀도우로 음영감을 더한다.

③ 은색 섀도우로 눈두덩 중앙에 질감을 살린 뒤 은박지를 얇게 잘라 세로로 붙인다.



④ 붓펜 아이라이너로 오른쪽 눈썹을 강인하게 올려 그려준다.

⑤ 은색, 주황색, 갈색 섀도우로 눈가에 색감을 입혀 생동감을 표현한다.

⑥ 인중에 회색 섀도우로 음영감을 주고 주황색 아이라이너로 뚜렷한 립 라인을 표현하여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그림 25)

⑥ 어도비 포토샵으로 구형의 파장을 연출하고 레이어를 썬위 회색으로 배경을 표현한다. 이후 사진의 중앙부터 색감이 퍼져나가듯 연출하여 최종 아트 작품을 완성한다. (그림 26)

<표 9> 작품 V - 디자인 드로잉

작품 V - 디자인 드로잉	
	
구 성	내 용
주 제	무채색 웃음
그로테스크 특성	웃음과 공포
색상	
재료	파운데이션, 파우더, 주황색 아이라이너, 붓펜, 립스틱, 섀도우, 디마왁스, 은박지



<그림 25> 아트 작품 V 「무채색 웃음」 메이크업



<그림 26> 아트 작품 V 「무채색 웃음」

6) 작품 VI -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1) 그로테스크 특성 - 웃음과 공포

(2) 디자인 의도

작품 VI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백진스키 미술관의 5번 방 1973년 원작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은 기괴한 가면을 쓴 나체의 여인이 표정이 없는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보여주며 모호한 감정을 유발하는 웃음과 공포의 특성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본 연구자는 외면과 내면의 양면성을 극대화시켜 현대 사회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의 현실을 웃음과 공포의 특성으로 표현해보았다.

거울을 들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여인은 치장과 사치 속에 진실된 웃음을 잃어버린 채 거짓된 감정의 웃음을 보인다. 붉은 피부 표현과 눈가에 자리 잡은 하트 문양, 황금빛 입술은 행복을 상징하는 하는 강제적 모습을 의미한다. 반면 거울 속 모습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게 도태된 본래 여인을 보여준다. 찢어가는 눈물과 상처가 눈가에 굳어있으며 강제적 웃음의 대가로 형태를 잃은 입술을 벌리며 나약한 본 모습을 드러낸다. 삶 속에서 거짓된 감정을 소모해야하는 여인의 전신을 산만하게 휘감고 있는 휘황찬란한 색감구성은 유희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나 그 속의 지독한 감정노동의 현실은 지독히도 암울하다는 것을 동시에 드러낸다.

작품 VI의 디자인 드로잉은 <표 10>에 제시하였다.

(3) 제작 과정

① 더마왁스로 눈썹을 커버하고 세미매트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피부를 정돈한다.

② 왼쪽 얼굴은 검은색과 회색 섀도우를 섞어 퍼프로 넓게 어두운 음영을 드리운다.



③ 붓펜 아이라이너로 눈가에서 퍼져가듯 변질된 슬픔의 눈물을 그려주고 남색 크림 섀도우를 브러시로 입가를 찢어진 형태로 표현한다.

④ 오른쪽 얼굴은 분홍색 크림 섀도우로 페이스라인을 그라데이션 해준 뒤 분홍색 립스틱으로 눈가에 하트모양을 채워주고 비슷한 컬러의 섀도우로 코팅한다.

⑤ 인조 속눈썹의 양 방향을 한 쪽 눈에만 과장되게 붙여주고 주황색 펄 섀도우를 입술에 발라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그림 27)

⑥ 어도비 포토샵으로 거울 속 인물을 합성 작업 후 노이즈 기법과 회색 배합을 적용하여 암울하고 기괴한 느낌의 편집을 하였다. 이후 조명 툴과 사진을 접목하여 색 반전을 적용하고 배경으로 삽입하여 최종 아트 작품을 완성한다. (그림 28)

<표 10> 작품 VI - 디자인 드로잉

작품 VI - 디자인 드로잉	
	
구 성	내 용
주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그로테스크 특성	웃음과 공포
색상	
재료	더마왁스, 파운데이션, 파우더, 붓펜, 크림 섀도우, 글리터, 섀도우, 립스틱



<그림 27> 아트 작품 VI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메이크업



<그림 28> 아트 작품 VI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7) 작품 VII - 탐욕의 괴물

(1) 그로테스크 특성 - 비정상성

(2) 디자인 의도

작품 VII ‘탐욕의 괴물’은 백진스키 미술관의 10번 방 1982년 원작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은 해골 형상의 신체가 거미줄과 나무 판자에 혼합된 채 뼈와 인체의 일부분을 접시에 담아 식사하는 모습의 비정상적인 특성의 작품이다. 본 연구자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현 시대의 문제로 인해 탐욕적인 괴물로 변모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정상성의 특성으로 형상화하여 비판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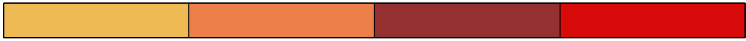
작품의 여성은 화려한 장신구와 값 비싼 물욕에 휩싸여 스스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지속되는 허기를 달래기 급급하다. 높은 자존심과 허영심은 치켜 올라간 눈썹의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비정상적으로 양쪽으로 길게 찢어진 입술은 뒤틀려진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며 점차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의미한다. 사치와 향락에 대한 욕구가 배경에 표현되고 있으며 여성이 먹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임을 표현해보았다.

작품 VII의 디자인 드로잉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3) 제작 과정

- ① 더마왁스로 눈썹을 커버하고 피부 톤보다 창백한 느낌을 주기위해 밝은 크림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피부를 정돈한다.
- ② 파우더로 전체적인 얼굴의 유분 감을 눌러주어 인형 같은 느낌을 연출한다.
- ③ 붉은색 립 라이너로 둥글게 올라갔다가 꺾이는 눈썹을 인위적으로 그려준다.
- ④ 와인색, 금색 크림 새도우를 눈두덩에 넓게 펴 발라 화려한 눈매를 강조하고 언더 부위에 빨간색 새도우로 기괴한 욕망을 표현한다.
- ⑤ 인조속눈썹을 속눈썹 위와 아래 전부 붙여준다.
- ⑥ 레드 립스틱으로 입술 주위를 과장되게 그려주고 포인트 브러시에 컨실러를 묻혀 깔끔하게 라인을 정돈하여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그림 29)
- ⑦ 어도비 포토샵으로 직접 촬영한 손과 장신구 사진을 색 반전 후 합성하여 배경을 연출하고 접시에 담긴 음식처럼 표현하여 최종 아트 작품을 완성한다. (그림 30)

<표 11> 작품 VII - 디자인 드로잉

작품 VII - 디자인 드로잉	
	
구 성	내 용
주제	탐욕의 괴물
그로테스크 특성	비정상성
색상	
재료	더마왁스, 크림 파운데이션, 파우더, 립 라이너, 립스틱, 크림 섀도우, 컨실러



<그림 29> 아트 작품 VII 「탐욕의 괴물」 메이크업



<그림 30> 아트 작품 VII 「탐욕의 괴물」

8) 작품 VIII - 청춘의 소멸

(1) 그로테스크 특성 - 비정상성

(2) 디자인 의도



작품 VIII ‘청춘의 소멸’은 백진스키 미술관의 10번 방 년도 미상의 원작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은 두상의 크기가 각자 다른 세 명의 사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으며 단순한 입맞춤의 모습을 벗어나 괴기스럽게 흡수하는 듯한 비정상적인 신체 결합의 작품이다. 본 연구자는 청춘의 아름다운 순간과 빛나던 모든 것들이 세월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소멸되는 순간을 비정상성의 특성을 통하여 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왼쪽에 자리 잡은 여인은 윤기 나는 머릿결과 백옥 같은 피부, 발그스름하던 혈색을 갖고 있으며 나비처럼 나풀거리는 여성스러움과 신비함을 레이스 용지와 망사 원단으로 얼굴의 윤곽을 감싸 표현해보았다. 가려진 윤곽사이로 보이는 분홍빛 경계는 고유의 생기를 표현하며 아름다움에 속한다. 반면 오른쪽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존재는 이러한 청춘을 앗아가는 세월이라는 이름의 그녀 자신이다. 푸석해진 머릿결과 빛을 잃은 피부의 온도, 푹 튀어나온 광대와 꺼진 팔자 주름, 뒤틀린 입매와 빛을 잃은 눈가는 비정상적으로 상반되는 모습으로 점차 청춘의 찬란한 순간들을 흡수하여 소멸시킨다. 이것은 피할 수 없이 당연한 삶의 이치이자 순환이며 미련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녀는 불꽃에 휩싸인 채 눈을 감는다.

작품 VIII 의 디자인 드로잉은 <표 12>에 제시하였다.

(3) 제작 과정

- ① 오른쪽 얼굴은 피부 톤 보다 밝은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로 깔끔하게 피부를 정돈한다.
- ② 오브제 기법을 사용하여 턱 선에 흰색 망사원단을 감싸고 데코 용지를 잘라 눈두덩과 콧대에 붙여준다.
- ③ 스펀지에 분홍색 피그먼트를 묻혀 망사 원단에서 시작되는 볼 선을 붉은 혈색으로 연출한다.
- ④ 눈두덩에 펄이 함유된 주황색과 흰색 크림 섀도우를 발라주고 인조 속눈썹을 붙여준다.
- ⑤ 왼쪽 얼굴은 노란색 계열의 파운데이션과 크림 셰이딩을 블렌딩하여 생기 없는 피부를 표현한다.
- ⑥ 진녹색 크림 섀도우를 왼쪽 눈가에 번지듯 표현하고 입술에도 스펀지를 이용하여 거칠게 그려준다.
- ⑦ 갈색 섀도우로 콧대와 팔자주름, 턱 끝에 음영을 주고 검은색 마스크라로 눈가에 질감을 더하여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그림 31)
- ⑧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하여 왼쪽 디자인과 오른쪽 디자인의 사진을 합성하고 포토샵 페인팅 기법으로 배경의 색상을 정리한다. 이후 불꽃의 형상을 삽입 하고 색감을 정돈하여 최종 아트 작품으로 완성한다. (그림 32)

<표 12> 작품 VIII - 디자인 드로잉

작품 VIII - 디자인 드로잉	
	
구 성	내 용
주제	청춘의 소멸
그로테스크 특성	비정상성
색상	
재료	파운데이션, 크림 섀도우, 글리터, 스펀지, 크림 셰이딩, 마스크라, 데코 용지



<그림 31> 아트 작품 VIII 「청춘의 소멸」 메이크업



<그림 32> 아트 작품 VIII 「청춘의 소멸」

IV. 결 론

그로테스크 예술 작품은 혼란스러운 현실을 비판하는 동시에 인간을 치유하며 불안과 인간의 존재를 모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로테스크 특성이 반영된 백진스키의 작품과 메이크업이라는 예술 분야를 접목시켜 현 시대의 문제점을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그로테스크 아트 메이크업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연구자는 단행본, 학술지, 선행논문 및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 그로테스크와 아트 메이크업, 백진스키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이후 기존 작품 이해와 아트 작품으로 제작할 작품 선정에 위해 백진스키의 작품을 표현 기법과 특징으로 분류 한 뒤 필립 톰슨의 현대적 특징에 부합되는 작품을 표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총 8점의 작품을 선정하고 작품 제작에 응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진스키의 생애와 예술관을 통하여 그의 독창적이고 기괴한 작품들이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성장 배경의 시련 속에서 무의식적 상상과 시도를 거듭하며 창출됨을 알 수 있었다. 이후 백진스키 그로테스크 작품의 이해와 작품 제작 시 모티브를 얻을 작품 선정에 위하여 사이트에 나열되어있는 작품을 표현 기법과 특징으로 1차 분류 후, 필립 톰슨의 그로테스크 이론(부조화성, 극단과 과장, 웃음과 공포, 비정상성)에 부합되는 작품을 최종 선별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둘째, 그로테스크의 형성 배경과 정의를 이해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예술에 적용된 변천사를 알아봄으로써 메이크업을 비롯한 다른 예술 장르와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아트 메이크업의 정의와 유형 및 표현 기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넷째, 부조화성, 극단과 과장, 웃음과 공포, 비정상에 해당되는 백진스키의

작품을 각 특성 당 2점씩 선별하여 총 8점의 그로테스크 아트 메이크업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I ‘시련’은 부조화성에 해당되며 오브제 기법을 사용하여 삶의 끝없는 시련을 견디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순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II ‘환상적 도피’는 부조화성에 해당되며 각박한 삶에 지쳐버린 인간이 꿈이라는 도피처를 갈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환상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품 III ‘삶과 죽음’은 극단과 과장에 해당되며 삶과 죽음이 공존하지만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세계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품 IV ‘고독’은 극단과 과장에 해당되며 현대 사회의 따돌림이라는 폐해를 겪은 현대인의 상처와 고독한 삶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V ‘무채색 웃음’은 웃음과 공포에 해당되며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러 자아를 버리고 인형처럼 살아가는 무채색 현대인들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작품 VI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웃음과 공포에 해당되며 현대 사회 속 감정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변질되어가는 속내와 의식적 웃음으로 겉을 포장해야만 하는 현실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VII ‘탐욕의 괴물’은 비정상성에 해당되며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사는 현대인으로 인해 괴물처럼 변모하는 현대 사회를 표현하였다.

작품 VIII ‘청춘의 소멸’은 비정상성에 해당되며 삶의 가장 아름답던 순간이 세월과 더불어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극명한 색채감과 무의식의 상상력을 그로테스크적 요소로 승화하는 백진스키의 작품을 재해석하여 제작함으로써 현 시대의 문제점을 아트 메이크업 예술로 표현하는 독특한 디자인 발상을 경험하였다. 8점의

그로테스크 아트 메이크업 제작을 시도한 결과 그로테스크 표현에 있어 메이크업 기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며 어도비 포토샵을 통한 사진 합성과 그래픽 기법으로 최종 작품을 완성하였다. 그로테스크 특성의 표현 범위와 상상력이 메이크업을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 접목 되었을 때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제작을 통하여 시도해 볼 수 있었으며, 이후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그로테스크의 자별한 표현 영역을 융합하여 보다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 작품과 특출한 디자인이 개발되길 바라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단 행 본

- E.H. 고프리치, 백승길, 이종승 역 (2013), “서양미술사”, 서울:예경
- H. W. 켈슨, 이일 역 (1991), “서양 미술사”, 미진사
- 김양은 외 3인 (2009), "Art make up", 파주:광문각
- 김영숙 외 5인 (2006), “ART MAKE-UP”, 도서출판예림
- 노효경 외 2인 (2006), "Beauty make up", 서울:훈민사
- 마르셀 파케, 김영선 역 (2008), "르네 마그리트 : 1898-1967", 서울:마로니에북스
- 마테오 키니, 윤옥영 역 (2007), "클림트 : 세기말의 황금빛 관능", 서울:마로니에북스
- 볼프강 카이저 저, 이지혜 역 (2011),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서울: 아모르문디
- 산업자원부 (1998), "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 접목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진흥원
- 신원선, 권태순 (2014), “아트 메이크업 발상”, 훈민사
- 오인영 외 2인 (2010), “Art make up design”, 서울:훈민사
- 이은기, 김미정 (2012), “서양미술사”, 미진사
- 이화순 외 6인 (2003), “The Art of Makeup”, 형설출판사
- 정금희, 조명식 (2004), "에드바르트 뭉크", 서울:재원
- 천지연 외 5인 (2013), "Art & character make up", 서울:칭구
- 최정화, 유영선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한국복식학

회, 40

프란시스코 고야, 정금희 외 2인 (2005), "프란시스코 고야", 서울:재원
피에트로 알레그레티, 조반니 아르피노, 이지영 역 (2010), "브뢰헬", 서
울:예경

필립 톰슨, 김영무 역 (1986), "그로테스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

학위 논문

권경애 (2000), “눈 메이크업이 안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부영 (2002), “현대미술에 나타난 신체성에 대한 연구: 신체성의 그로
테스크 (grotesque)적 표현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김선호 (1983), “Besuch der alten Dame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기
법”,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현 (2005), “그로테스크 특성이 반영된 예술 분장의 연구”, 중부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숙 (200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진 (2004), “화예조형에서의 그로테스크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
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유경 (2002), “무대의상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미지 연구”, 숙명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한나 (2003), “식물의 그로테스크 표현을 중심으로 한 장신구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홍희 (1997), “미국 페미니즘 비디오 미술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선영란 (2008), “영국현대미술에서 나타나는 신체이미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진희 (2010), “미술 작품을 활용한 현대음악 감상 지도 방법론 : 표현주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용준 (2008), "그로테스크 아트퍼니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원선 (2012), "아트 메이크업 교육을 위한 MIS 디자인 발상 프로세스",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창규 (1995), “뒤렌마트 희극의 근본구조로서의 그로테스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나현 (2014), "디자인 원리를 적용한 아트메이크업의 감성이미지 표현",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여명 (2009), Grottesque의 표현요소를 통한 애니메이션 연구, 동명정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성혜 (2007), “그로테스크 표현을 통한 World of Warcraft와 리니지 II의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예진 (2013), "현대 패션에 표현된 추(醜)의 미학 :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희 (2007), “그로테스크적으로 표현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선 (2011), “조르주 쇠라의 점묘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 제작”,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후 (1998),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진 (2014), “크리스 쿡시 작품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의 그로테스크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림 (1988), “Thomas Mann의 초기단편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현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미숙 (1999),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 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은선 (1997), “현대사진에 나타난 여성신체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성한 (1992), “Beksinski의 藝術世界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아 (2013), "현대미술에서 그로테스크 표현연구 : 도그마티즘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주해정 (2013), "영상미디어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캐릭터 형태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진은수 (2011), “무의식적 동기에 의한 언캐니 형상의 탐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제순 (1982), “F.Duerenmatt의 Der Besuch der alten Dame에서 나타난 그로테스크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라 (2004),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추(醜)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승민 (2006), “초현실주의적 환상이미지 연구 : 북부 유럽의 대표적 작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함순용 (2009), “고야 판화연작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학회지 논문

노희영 (2006), “現代 아트메이크업의 繪畵的 경향과 기법”, 대한피부미용학회지, 4(2), pp.183-194

박은경 (2003), “패션에 표현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41(10), pp.87-91

이선화 (2011),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조형성”, 한국복식학회지, 61(5), pp.34-47

이영희 (2010), “그로테스크적으로 표현된 바디페인팅에 관한 연구”,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6(3), pp.347-362

장미숙, 양숙희 (2000), “1990년대 후반 그로테스크 메이크업-메이크업 광고와 컬렉션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8(3), pp.436-499

국외 문헌

Dmochowski (1991), “BEKSINSKI”, API

인터넷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0837&cid=40942&categoryId=34397> (검색일자:2015년 9월 19일) -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727&cid=272&categoryId=272/>

(검색일자: 2015년 11월 10일)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5787&cid=48639&categoryId=48639> (검색일자: 2015년 11월 10일) -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9045&cid=40942&categoryId=32856> (검색일자: 2015년 11월 20일) -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5174&mobile&cid=46720&categoryId=46824>, (검색일자: 2015년 11월 30일)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27148&cid=40942&categoryId=33054> (검색일자: 2015년 11월 10일) - 네이버 두산백과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uide.php>

(검색일자: 2015년 10월 5일) - 백진스키 작품 1-16번방 설명 원문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php?artist=34>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php?artist=37>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php?artist=55>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php?artist=56>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php?artist=57>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php?artist=58>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php?artist=59>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php?artist=51>

(검색일자: 2015년 10월 5일) - <표 3> 백진스키 미술관 사이트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php?artist=50>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php?artist=52>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php?artist=1>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php?artist=62>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php?artist=13>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php?artist=53>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php?artist=54>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php?artist=61>

(검색일자: 2015년 10월 5일) - <표 4> 백진스키 미술관 사이트

<http://blog.naver.com/yejihanja/20170410996>

(검색일자: 2015년 11월 30일) - <그림 1>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2449 (검색일자: 2015년 10월 5일) - <그림 9>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3398 (검색일자: 2015년 10월 5일) - <그림 10>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7&picture=2863 (검색일자: 2015년 10월 5일) - <그림 11>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13&picture=266 (검색일자: 2015년 10월 5일) - <그림 12>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2443 (검색일자: 2015년 10월 5일) - <그림 13>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1&picture=2528 (검색일자: 2015년 10월 5일) - <그림 14>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2515 (검색일자: 2015년 10월 5일) - <그림 15>

http://beksinski.dmochowskigallery.net/galeria_karta.php?artist=52&picture=2454 (검색일자: 2015년 10월 5일) - <그림 16>

ABSTRACT

Expression Research of "Grotesque" Art Make-up Inspired by Zdzislaw Besinski's Art

Park, Ju Hy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Make-up·Special Effect Make-up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Modern arts and culture expanded the range of creative expressions to a degree that grotesque images, which moved far away from conventionally acceptable levels, can be embraced as part of art forms. The grotesque is an eccentric and avant-garde form of expression used to lay bare social problems in a symbolic way or show the artist's state of mind in an exaggerated manner, which is considered a dramatic manifestation fit for modern society.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introduces the artworks of Zdzislaw Beksinski, one of the most prominent grotesque artists of our time, by analyzing his works in terms of modern characteristics of grotesqueness and then recreates them as art make-up works. Through these recreations, the researcher aims to expand the range

of shocking visual make-up art designs and thereby contribute to further development of such designs. The methodology adopted by the researcher in this study is a literature survey and analysis of some of the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the topic to examin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grotesque and art make-up. The artworks of Beksinski are then classified in terms of the four modern characteristics of the grotesque as put forward by Philip Thomson. The eight works of Beksinski are reinterpreted to create grotesque art make-up works.

The results are summarized below. First, this thesis begins with a description of Beksinski's personal life, his worldview, and some of his works. After classifying his works in terms of expression techniques and special features, the researcher moves on to select Beksinski's works that match Thomson's grotesque features - disharmony, extreme and exaggeration, laughter and fear, and abnormality. Second, the researcher looks a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grotesque and the changing idea of the grotesque through time while speculating on the possibility of the grotesque as a form of artful expression. Third, the definition of art make-up, its types, and technical expressions is explored. Fourth, the researcher selects eight works from the artworks of Beksinski included in the table in this study and uses them as source materials for art make-up works.

The works selected are as follows:

- (1) Work #1: "Ordeal" is an example of disharmony, which

expresses the irrationality of life that must go on even in the face of an unrelenting series of ordeals;

(2) Work #2: "Phantasmagoric Escape" is also part of disharmony, which expresses a world of fantasy that has become a refuge from the cruelty of life;

(3) Work #3: "Life and Death" belongs to extreme and exaggeration, which embodies a world in which life and death cohabit;

(4) Work #4: "Loneliness" is also classified as an example of extreme and exaggeration that shows modern Man living a life of an outcast;

(5) Work #5: "Colorless Laughter" is an example of laughter and fear that criticizes modern Man living like on an automated assembly-line, swayed left and right by how other people think about him;

(6) Work #6: "Smile Mask Syndrome" is also part of laughter and fear which expresses extreme difficulties faced by many people in their workplace, when they must smile on the outside even though they are smoldering with anger inside;

(7) Work #7: "Monster of Avarice" is classified as an example of abnormality which expresses modernity that fell prey to materialist culture - the culture elevating desire satisfaction to become the ultimate goal of life;

(8) Work #8: "Termination of Youth" is also part of abnormality, which shows an image of a woman whose beautiful youth is

extinguished through time.

This study was inspired by Beksinski's motifs, which were reinterpreted as grotesque art make-up designs. Then, these images were amended by means of Adobe Photoshop retouching, including photomontage and graphic techniques, to create the final art images.